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서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제 출 문

경상북도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10

(주)동우이엔지 대표이사 우 정 미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3. 연구의 진행 단계	5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6
1. 경계지역의 이해	7
2. 정주여건 및 생활SOC의 이해	8
3. 경계지역 관련 정책 및 개발 이론	13
III. 현황 여건 분석	23
1. 경상북도 일반 현황	24
2. 경상북도 경계지역 현황	36
3. 상주시 일반 현황	62
4. 상주시 경계지역 현황	81
IV. 관련 여건 분석	94
1. 관련 계획 및 법규	95
2. 국내·외 선진사례	111
3. 개발 여건 동향	124
4.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134
V. 경계지역 생활SOC 개선방안	138
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안	139
2. 세부 추진 방안 검토	140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진행 단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역 내 행정적, 기능적, 자연적 형태의 다양한 경계지역은 공간 현상을 다루는 단위로서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의 분석 단위로 활용되고 있음
- 경계지역에서는 경계에 의해 지역발전이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확산 효과를 저해하여 지역 간 단절적 격차를 발생시키고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함
- 경상북도 경계지역과 시·군 경계지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소외된 지역으로 2023년 1분기 기준 14개 시·군, 64개 읍·면이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의 시·군·구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213,987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경계지역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정주여건은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특히, 시·군 경계지역 마을은 충분한 생활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기업 측면에서도 투자를 시도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한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경계지역 마을들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지역의 다원적 자원과 지역 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고유의 생활SOC 시설 확충과 함께 정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계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과 ‘지역균형발전’ 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지역발전 격차는 다양한 지역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지역 중심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별 연계·협력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군별 지원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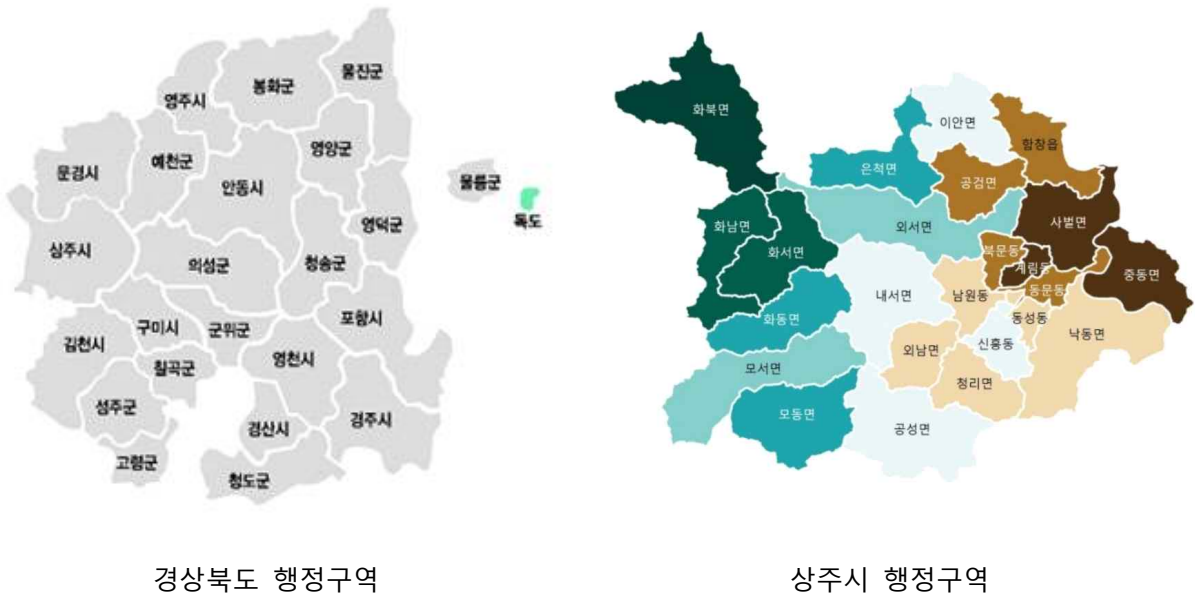
I.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경계지역 전역
 -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경계 전역을 연구 대상 제1차 권역으로 설정하고 집중 사례연구 대상지로서 상주시를 제2차 권역으로 설정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 경상북도 경계지역 현황
 -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 SOC 현황
 - 선진 연구 및 계획 검토
 -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지역주민, 지역의원, 전문가 등 의견 수렴

I. 연구의 개요

- 지역의원 및 전문가 FGI 조사
- 경계지역 생활SOC 개선 방안 제시
- 경계지역 생활SOC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경계지역 생활SOC 개선을 위한 조례(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 관련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본 연구의 이해 및 방향 설정, 이론적 기반 확립을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 논문 및 보고서, 정부 기관 및 지자체의 관련 계획 및 사업 보고서 등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함
 - 국내·외 우수한 사업성과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 검토
- 대상지역 생활SOC 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
 - 광역 및 중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정주여건 및 생활SOC 시설 조사·분석
 - 국내 개발사업의 여건과 동향을 검토하고 현황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경계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의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 FGI(focus Group Interview) 기법을 통한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의견 수렴과 혁신적 아이디어 수집

I. 연구의 개요

3. 연구의 진행 단계

<표 1-1> 연구의 진행 단계



연구의 이론적 고찰

1. 경계지역의 이해
2. 정주여건 및 생활SOC의 이해
3. 경계지역 관련 정책 및 개발 이론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1. 경계지역의 이해

1) 경계지역의 정의

- 본 연구에서 경계지역에 대한 정의는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참고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도록 함
- 각 조례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경계지역’ 을 시·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또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 ‘경상북도 경계지역’ 을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시·군의 경상북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읍·면·동으로 정의함
 - ‘시·군 경계지역’ 을 시·군과 시·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또는 토지로 정의함

<표 2-1> 경계지역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

구 분	개념 정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조례 (제 2조)	1. "도 경계지역"이란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시·군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읍·면·동을 말한다. 2. "시·군 경계지역"이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 경계지역 주민"이란 도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도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4.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경상북도 내에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군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	1. "시·군 경계지역"이란 시·군과 시·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또는 토지를 말한다. 2.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해당 시·군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시·군간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이 소재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	1. "시·군 경계지역"이란 시·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또는 토지를 말한다. 2.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시·군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군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3.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각 목 과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경계지역의 사회적 인식

- 기존의 정부나 지자체 사업 내용에 따르면, 경계지역은 행정상 중심지가 아닌 가장자리 지역으로 낙후 소외지역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며 인구감소지역, 지역소멸지역, 지역활성화 정책 대상지역, 특수상황 접경지역, 발전소 인근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거, 복지, 일자리, 문화, 여가, 육아,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중심지활성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계지역 역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검증받은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함
- 긍정적 인식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지만 두 지역의 경계 지점이나 인접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두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블생활권’으로의 유리한 점도 있음
- 또한, 경계지역은 지리적 위치상 중심지는 아니나 타 지역 사람들이 방문하고 유입되는 관문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계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관문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개념 도입과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

2. 정주여건 및 생활SOC의 이해

1) 정주여건의 개념

- ‘정주여건’이란 혼자 혹은 가족과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환경의 정도를 말하며 우수한 정주여건은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뜻하며, 흔히 일컫는 생활인프라가 충분할 경우 정주인구가 증가함
- 좋은 정주여건이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양한 요소들이 잘 조화된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휴양, 수면, 가사, 육아, 건강관리, 교육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서비스, 시설, 설비 등이 갖추어져 거주하는 지역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생활이 가능해야 함

- 정주여건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는 안전과 보안, 주거환경, 경제적 안정, 교육기회, 건강 및 복지서비스, 환경적 조건, 사회적 연결 및 문화적 활동 등이 있음
 - 안전과 보안 : 범죄율이 낮고 주거지와 공공장소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
 - 건강한 주거 환경 :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의 제공을 말하며, 이는 주거 공간의 안정성, 건강성, 생활 편의성 등을 포함
 - 경제적 안정 :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소득 분배 등을 포함함
 - 교육의 기회 : 고품질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 접근성, 교육의 질, 평등성 등을 포함함
 - 건강 및 복지 서비스 : 고품질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게 하며,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함
 - 환경적 조건 :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적 연결 및 문화적 활동 :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사람들이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술, 역사, 문화 활동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지원하며 지역 내 문화적 자원을 개발함

2) 생활SOC의 개념

- 생활SOC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과 달리 사람들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서비스)을 의미하며,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방향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됨
- 생활SOC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국민 생활 편의 증진시설(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기초인프라 및 보육, 의료, 복지, 문화, 체육, 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하며,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등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과는 다른 개념임
- 2018년 3월에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방향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2018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 도입
- 같은 해 제정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이란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그림 2-1>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비교



출처: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 2019년 4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종래의 사회기반시설과 생활SOC의 개념을 비교해보면,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도로·철도·공항·항만·댐 등)이나 시설 효율 증진 및 이용자 편의시설(지능형 교통체계, 복합터미널 등)을 의미하였다면, 생활SOC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시설을 의미
 -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는 국민들의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육 및 문화시설을 대표적인 생활SOC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공체육 인프라는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인공암벽장 등의 실외체육시설을 생활SOC에 포함함
 - 또한,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예술터,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생활문화공간도 생활SOC로 분류하는 등 생활SOC 33종 주요시설을 발표함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표 2-2> 생활SOC의 범위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18.8.)		생활SOC 3개년 계획('19.4.)			
		분야별 과제	생활SOC 사업	세부시설	
① 여가·건강 활동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①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체육관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실외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인공암벽장	
②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	취약지역 도시재생	②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생활문화공간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메이커스페이스
	스마트 영농 확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농산어촌개발	커뮤니티시설, 다가치센터
			어촌뉴딜	여객복합편의시설	
		LPG 배관망	LPG 배관망		
		주차장	주거지·전통시장 주차장		
③ 생활 안전·환경	복지시설 기능 보강	②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온종일 돌봄체계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 돌봄교실
	공공의료시설 확충	②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공립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주민건강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③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안전한 삶터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교통 안전	보행안전시설, 줄음터
미세먼지 대응 강화	③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지하매설물 안전	노후 상하수도 정비, 장기사용 열수송·가스관	
			화재 및 재난 안전	우수저류시설	
			생활환경	미세먼지 저감 도시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③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휴양림·야영장	휴양림, 국립공원 야영장, 숲속 야영장, 기타 야영장	
			도시공원	도시공원	

출처: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3. 경계지역 관련 정책 및 개발 이론

1)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과거 중앙집권체제의 지역발전은 중앙이 주도하는 분산형 균형 발전에서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되어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이 요구됨
-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하며,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하여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지방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함
-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각 지역에 맞는 고유한 특성, 개성을 찾아 자립적인 발전을 행하여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함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지역발전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지역발전 모델 재정립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 이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의 지역개발 시책들을 과감하게 지역 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지방행정기관과 중앙부처와의 상호 간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을 갖추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권화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용능력을 향상하고 지역 차원의 행정통합 방안 등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기존의 절차와 달리 인구감소지역법은 우선적으로 시·군·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시·군·구와 시·도의 계획을 기반으로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수립 절차를 통하여 지역의 수요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정책이념

- 삶의 질은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개념이 변화해 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 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이라 정의함
- 우리나라는 2015년 12영역 79개 지표로 구성된 체계의 ‘국민 삶의 질’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지표체계를 개편하여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등 11개 영역으로 구분함
- 2018년, 정부는 정책대상으로서 생활SOC의 개념을 국무총리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보육, 의료, 시설, 복지,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로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책목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함
- 정부에서도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삶의 질을 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성이 나타나 「생활SOC 3개년 기본계획(2020~2022)」에서 생활SOC 투자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을 개선시키고, 그 개념을 예전의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중심에서 일상생활 속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중심으로 전환함
- 제4차 「저출산·초고령사회 기본계획(2012~2025)」에서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하며, 제1차~제3차 기본계획에 비해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짐
- 같은 맥락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경계지역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최우선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가 되어야 함
- 경계지역은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며 그 기준은 인구의 규모에 따른 물리적 증가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
-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적 최저 수준을 공간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3) 복합화 개발과 용도 혼합 개발

-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단시간에 조성된 공공서비스 시설들은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및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산만하게 조성되었으며,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거나 운영 미숙 및 프로그램 부족에 따른 서비스 불만족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내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기존 도시 내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시설 통합화 및 복합화에 대한 연구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복합화 개발은 다양한 용도나 기능이 결합된 개발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업, 주거, 오락, 문화 등 여러 기능을 갖춘 건물이나 공간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개발 방식은 효율적인 토지 사용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
- 공공서비스 시설의 토지이용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설별 기능 배분보다는 기능별 프로그램의 관련 정도에 따라 시설물이 배치되고 공간이 배분되는 것이 주민들의 활동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공공시설 복합단지 통합개발은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들 간 물리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공공시설을 함께 설계·시공·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임
- 정부가 주도한 생활밀착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함
- 시설 복합화는 공유 기능을 가진 2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대지에서 위치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행정 소관 소속 부서가 각기 다른 업무기능이 필요에 따라 동일 시설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
- 시설의 복합화는 부지확보의 용이성, 건설 및 운영 비용 절감, 다양한 기능 및 프로그램의 연계성, 접근성과 이동 시간의 단축, 저렴한 이용료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지녀 높은 만족도를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보임

- 공공시설의 복합화의 목적은 크게 다양한 기능의 집적효과, 시설의 관리·운영 효율화, 토지·공간의 유효 이용이며, 시설 복합화의 장점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시설의 이용 기회를 집적하여 제공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주민은 복합화된 공공시설에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며 공동체 의식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지역개발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복합화 개발과 함께 주거,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한 거리에 배치하는 용도 혼합 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용도 혼합 개발(mixed-use development)은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하는 방식임
 - 과거에는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서 복합개발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거, 산업, 학술, 연구 등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테크노폴리스, 텔레포트, 인텔리전트 시티 등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적극적인 복합화, 혼합화까지 포함
 - 여러 용도의 건축물을 하나의 프로젝트나 지역에 통합·개발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 교통혼잡 감소, 친환경 교통수단 장려,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4) 축소 도시 시대의 도시정책

- 최근 많은 도시가 본격적인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경제기반이 축소되고 도시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쇠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가 및 도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 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 활력과 삶을 저하시키고 있음
- 인구 및 경제 규모가 수축되는 도시축소 현상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에 대응하여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도시관리 전략으로서 새로운 정책적 전환이 요구됨
 - ‘축소 도시’는 기존 성장 위주 도시정책에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고자 대두된 개념으로 도시의 성장 둔화 및 쇠퇴를 ‘축소’로 받아들이고, 도시의 축소로 인해 생긴 유휴 인프라,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토를 녹지화하는 등 토지의 집약적인 이용이 강조되고 있음
 - 도시축소 시대의 도시계획으로는 기존의 낙관적 인구 예측을 기반으로 성장 지향적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컴팩트-네트워크 시티와 연계한 거점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공간 재편 및 공공시설의 집적화’가 제안되고 있음
 -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란 도시가 외곽으로 성장하며 자연이 파괴되고 사회적 인프라 제공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등장한 개념으로 도심지에 주거·상업 기능을 집중하고 도시팽창을 막아 쇠퇴에 대응하는 방식임
 - 도시축소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도시 압축’과 ‘인접 지자체 간 연결’은 도시 외곽의 불필요한 공간을 철거하고 기존 시가지의 빈집을 활용해 주거 기능을 유도하며, 생활 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기능을 압축하여 불필요한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또한, 지역별로 공공서비스 수요와 공급량을 파악해 폐지·이전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운영 비용 부담을 피하고 서비스 향상과 함께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주민에게도 함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행정통합과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함

5) 경계지역 개발과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 경계지역은 두 개 이상의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구역이 만나는 지점이나 지역을 의미하며, 경계지역 개발이란 일반적으로 지역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음
 - 첫째, 경제적 발전 촉진 : 경계지역 개발은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둘째, 지역 간 균형 발전 : 경계지역은 종종 낙후되어 경제적으로 뒤쳐지거나 발전이 더디므로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셋째, 사회적 통합 증진 : 경계지역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며, 인접 지역과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려는 노력을 포함하여 지역 내·외의 주민들 간의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
 - 넷째, 지속가능한 개발 : 자연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발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보호를 포함함
- 경계지역 개발은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나, 특수한 경제적·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특수한 잠재력을 최대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 경계지역 개발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과 계획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실행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지역주민 및 사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접근방식이 필요함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 지역을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공간 특성을 강조하면서 환경, 경관,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외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개발사업은 특정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회적 문제해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나 자치단체 간 협력을 장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특정 사업이나 정책 분야에서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특정 법률을 통해 자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함
- 경계지역의 개발은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의 공동 설치 등 상호편익 증진을 과제로 수평적 대등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행정상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행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6)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6호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기준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공급 기준
-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함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 최저기준의 적용 범위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및 농촌(읍면 소재지)으로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시설별 1인당 시간 거리를 제시, 차량을 통해 접근하는 대규모 시설은 ‘지역거점시설’, 도보로 통해 이용가능한 ‘마을단위시설’로 구분함

<표 2-3>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시설 구분		세부시설	최저기준
지역 거점 시설	공공거점도서관	국공립도서관(지자체, 교육청설립포함)	차량 25분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차량 20분
		전시시설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차량 10분
		체육관	차량 15분
		수영장	차량 30분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차량 30분
			보건소
		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차량 20분
		지역거점공원(10만㎡ 이상)	차량 10분
마을 단위 시설	마을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시설 주차장	도보 10분
	마을도서관	공공거점도서관, 시립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도보 10~15분
	어린이집	국·공립 및 민간	도보 5분
	유치원	국·공립 및 민간	도보 5~10분
	초등학교	-	도보 10분
	마을노인복지시설	노인교실	도보 10분
		경로당	도보 5분
	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도보 10~15분
	근린공원	도시공원	도보 10~15분
	의원	1차 병원(의원, 치과, 한의원)	도보 20~25분
	약국	-	도보 15~20분
	소매점	-	도보 10분
기타생활편의시설	무인택배함, 쓰레기분리시설 등	도보 5분	

출처: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II. 연구의 이론적 고찰

- 지역거점시설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의 소생활권이며 공공 주체로 낙후지역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며, 마을단위시설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상 근린권역으로 공공 투입을 우선하나 민간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아파트 수준의 편의와 복지 공급을 목적으로 함
- 전국을 지역거점과 마을단위로 구분, 각각 500×500, 200×200m의 셀로 격자화해 각 개인의 거주지 근린에서 최단 거리 시설까지의 접근 거리를 분석함
- 최저 기준은 도시주민의 향유 수준과 국민의 희망 수요를 고려해 도출했으며 주민이용 편의, 공급비용 대비 이용가능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적소 공급을 지향하며, 생활SOC 실태 파악과 국가나 지자체 공급계획의 기준으로 활용함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의 16개 마을단위 세부시설에 대해서 시간기준으로 국가적 최저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지자체 별로 200 x 200m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성 분석 결과를 배포함

현황 여건 분석

1. 경상북도 일반 현황
2. 경상북도 경계지역 현황
3. 상주시 일반 현황
4. 상주시 경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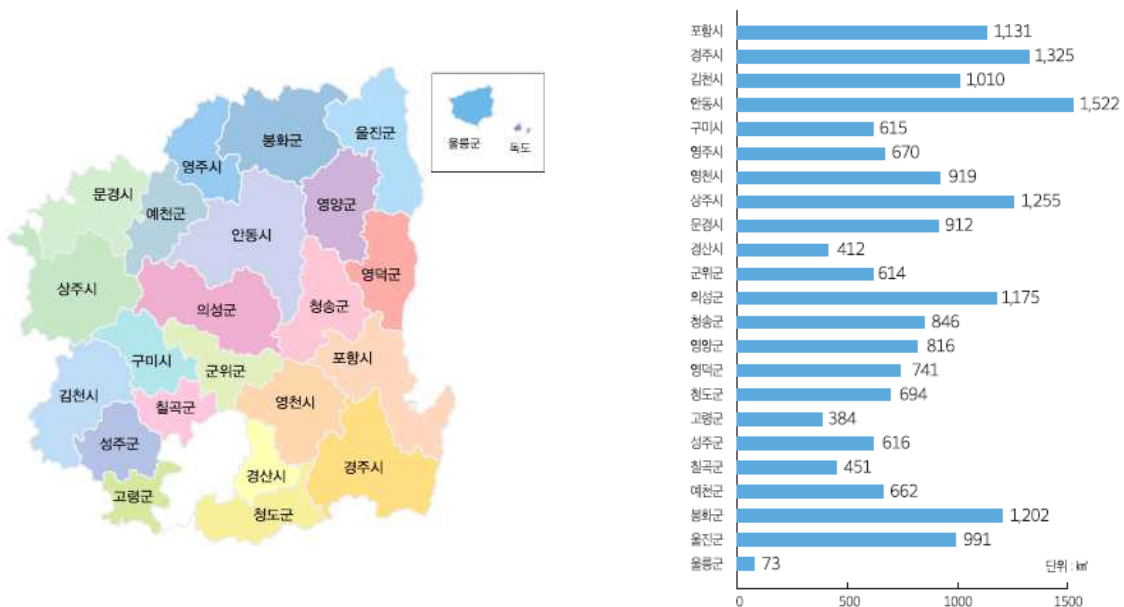
Ⅲ. 현황 여건 분석

1. 경상북도 일반 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 경상북도는 한반도의 동남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은 동해안, 북쪽은 강원·충북, 서쪽은 충북·전북, 남쪽은 경남·울산과 연결해 있음. 지리적 좌표로는 북위 35° 34' ~37° 33' 사이에 위치
- 대체로 산지가 많고 고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북부와 서부의 높고 험준한 소백산맥이 낙동강 유역의 광활한 평야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운문산, 비슬산 등이 있어 전체적으로 거대한 분지의 지형
- 지형의 특성으로 남·북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축으로 중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중부내륙권고속도로가 개통 및 계획되면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충청·강원·경북의 3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
- 행정구역은 10개 시 12개 군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읍 37개, 면 193개, 행정동 92개, 통리 8,099개, 반 36,313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 경상북도 행정구역 및 시·군별 면적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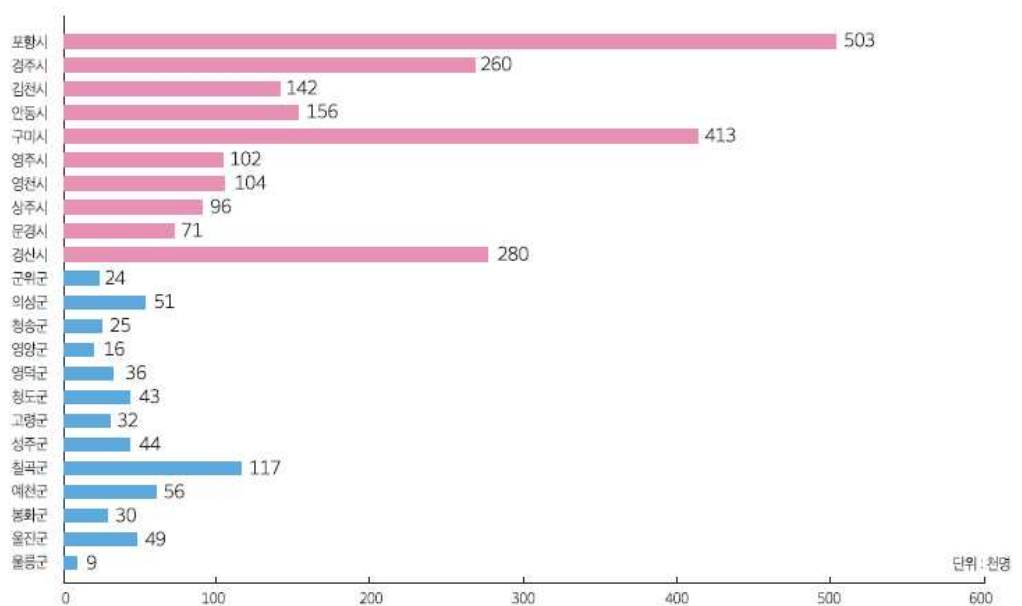
Ⅲ. 현황 여건 분석

2) 인문사회적 여건

가. 인구 현황

- 총 인구수 2,657,547명, 총 세대수 1,286,873세대, 세대당 인구수 2.1명, 65세이상 고령자 618,275명, 인구밀도 139.6명/km²

<그림 3-2>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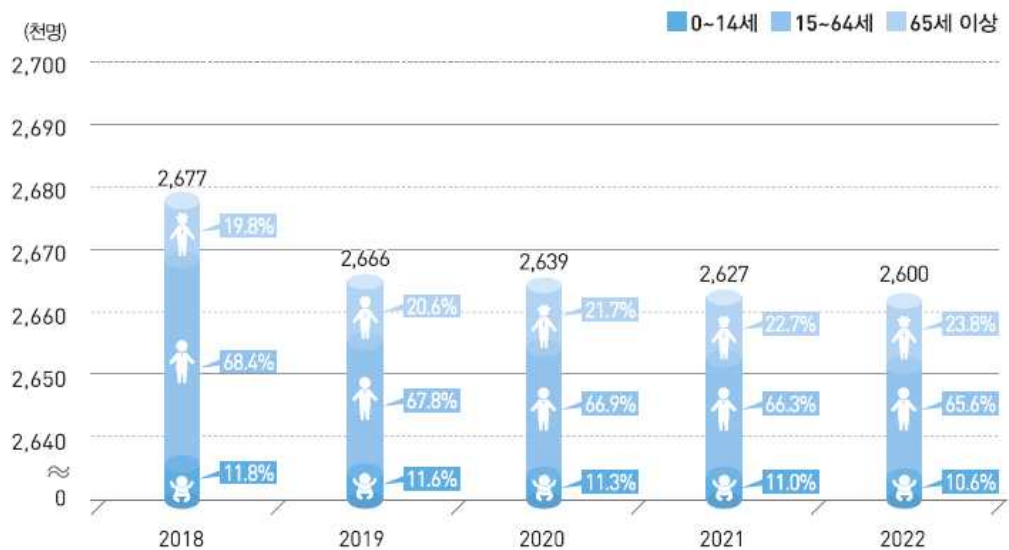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지난 6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0개 지역으로 경산시, 예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하였음
- 영덕, 고령, 봉화 등 19개 시·군은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보이며, 2020년부터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영양, 영덕, 고령, 칠곡, 봉화, 울진, 2023년부터 경산, 2026년부터 김천, 2027년부터 문경이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경북지역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1,801천명에서 2030년 1,535천명, 2035년 1,386천명, 2040년 1,223천명으로 2022년 대비 -32.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치단

Ⅲ. 현황 여건 분석

- 체별로는 영주시 -43.3%, 고령군 41.9%, 봉화군 -41.0%, 영덕군 -39.6%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경북지역 고령인구(64세 이상)는 2020년 551천명에서 2030년 822천명, 2035년 942천명, 2040년 1,040천명으로 2022년대비 88.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자치단체별로는 구미시 175.4%, 칠곡군 134.3%, 경산시 126.5%, 포항시 98.9%, 영천시 96.8%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경북 전체가 초고령 사회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3-3> 경상북도 연령별 인구추이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나. 토지이용 현황

- 경상북도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총면적 19,036.37km² 중 임야가 71.1%인 13,542.40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농경지 2,943.35km², 하천 568.11km²의 순으로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1> 경상북도 지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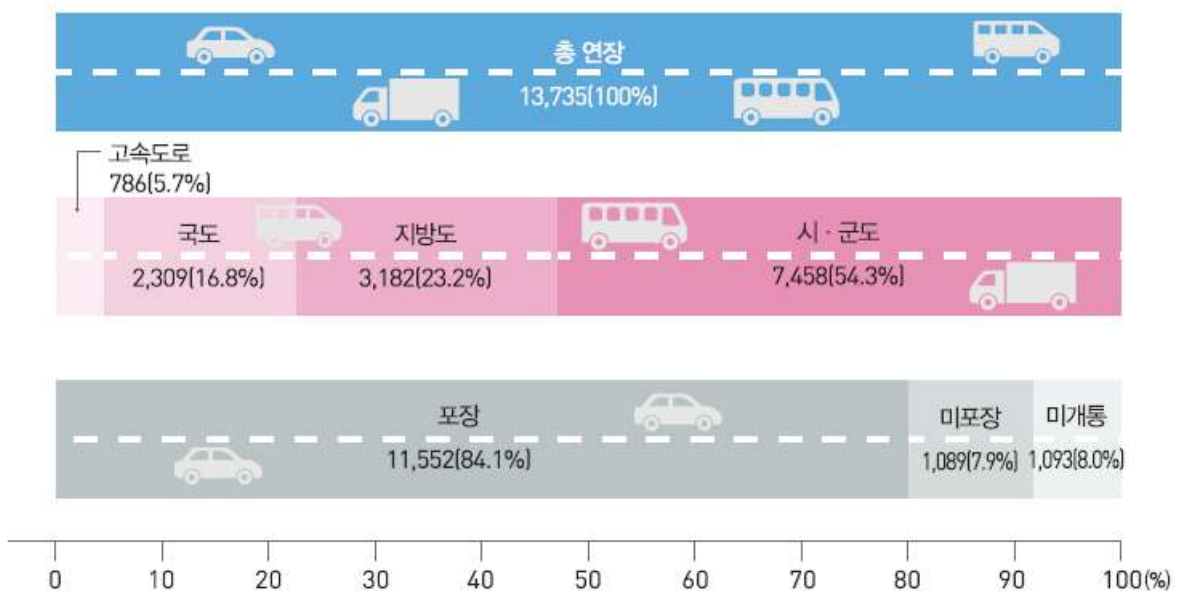
구 분	계	농경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면적(km ²)	19,036.37	2,943.35	13,542.40	344.26	120.64	32.95
구성비(%)	100.0	15.5	71.1	1.8	0.6	0.2
구 분	도로	하천	구거	유지	기타	비고
면적(km ²)	442.37	568.11	351.94	184.03	506.32	-
구성비(%)	2.3	3.0	1.8	1.0	2.7	-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다. 도로·교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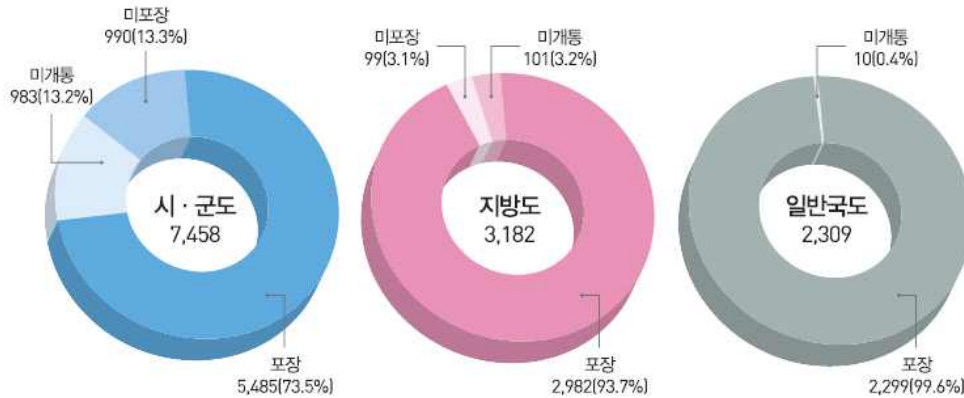
- 경북 전체의 도로 총연장은 13,735km이며, 시·군도 7,458km (54.3%), 지방도 3,182km(23.2%), 국도 2,309km(16.8%), 고속도로 786km(5.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도의 포장률은 73.5%, 지방도의 포장률은 93.7%, 일반국도의 포장률은 99.6%이며, 경북 전체 포장률은 84.1%임

<그림 3-4> 경상북도 도로 현황



Ⅲ. 현황 여건 분석

<그림 3-5> 경상북도 도로 포장 현황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 경북지역의 고속도로는 8개 노선이 있으며, 총 연장은 1,814,61 km로 남북 방향은 경부고속도로, 중앙내륙, 중앙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인 대구·부산고속도로, 동서 방향은 당진·영덕, 무안·광주·광주·대구, 익산·포항, 민자고속도로인 상주·영천고속도로가 형성되어 비교적 남북 방향의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음
- 경상북도를 통과하는 철도는 남북 방향으로 고속철도 경부고속선, 경부선, 문경선, 동해남부선, 대구선, 중앙선, 영동선이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대구선, 괴동선 등 총 11개 노선이 있음. 그 외 영천 삼각선과 북영주 삼각선이 있음

라. 상·하수도 현황

- 2022년 경상북도의 총인구 2,657,547명중 급수인구는 2,520,463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4.8%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1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1,013,900m³, 1일 1인당 급수량은 455ℓ 임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2> 상수도 보급 현황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m ³ /일)	급수량 (m ³ /일)	1일1인당 급수량(ℓ)	급수전수 (개)
2018	2,733,800	2,530,593	92.6	981,900	1,120,014	442	528,215
2019	2,723,955	2,530,510	92.9	995,900	1,130,594	442	545,469
2020	2,691,891	2,516,560	93.5	985,400	1,132,216	442	558,859
2021	2,677,709	2,518,951	94.1	984,600	1,170,391	453	573,612
2022	2,657,547	2,520,463	94.8	1,013,900	1,179,754	455	751,543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 경상북도의 하수 처리 대상 인구는 2,245,778명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84.5%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인구는 2,228,259명임

<표 3-3> 하수도 보급 현황

구분	총인구(명)	비처리인구 (명)	처리대상인구 (명)	공공하수 처리인구(명)	하수도보급률 (%)
2018	2,733,800	492,316	2,242,484	2,186,423	82.0
2019	2,723,955	469,082	2,254,873	2,203,575	82.8
2020	2,691,891	444,000	2,247,891	2,197,817	83.5
2021	2,677,709	430,236	2,247,473	2,233,460	83.9
2022	2,657,547	411,769	2,245,778	2,228,259	84.5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마. 도시가스 현황

- 경상북도의 도시가스 공급권역 총가구 수 1,258,286세대 중 수요가수 수는 870,257세대로 도시가스 보급률은 69.2%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적인 보급률은 다소 낮은 편임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4> 도시가스 보급 현황

구분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	공급권역 총가구 수	보급률 (%)
2018	776,786	1,179,225	65.9
2019	800,208	1,199,318	66.7
2020	828,780	1,226,159	67.6
2021	856,443	1,248,502	68.6
2022	870,257	1,258,286	69.2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바. 사회복지시설 현황

-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수는 590개소로서 노인복지시설 44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93개소, 아동복지시설 15개소, 여성복지시설 5개소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수는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여성복지시설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함

<표 3-5>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2018	527	15	422	54	11
2019	549	15	432	65	13
2020	597	15	444	94	15
2021	577	15	431	90	17
2022	590	15	449	93	5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사. 문화공간 현황

- 경상북도 문화공간은 공연장(공공 및 민간) 51개소, 영화관 36개소, 전시실(미술관 및 화랑) 36개소, 지역문화복지시설(시·군민회관 13개소, 종합복지회관 4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62개소) 116개소, 문화원 23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 공연장 및 문화원은 대부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영양군, 고령군, 봉화군 등에는 공연장을 보유하지 않아 지역의 문화공연 수요 대응을 위한 양적 확충이 필요함
- 영화관의 경우 청송군, 청도군, 봉화군 등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미술관은 경주시가 3개소, 화랑은 청도군이 20개소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 분포되지 않아 전체 문화공간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함

<표 3-6> 문화공간 현황

구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시군민 회관	종합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원	전수회관
2018	34	6	30	8	26	13	28	65	23	14
2019	40	10	32	11	26	14	26	62	23	12
2020	39	8	29	11	26	15	29	61	23	18
2021	43	9	36	11	24	13	26	62	21	16
2022	40	11	36	11	25	13	41	62	23	14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아. 문화관광자원 현황

- 경상북도 문화재는 총 2,256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762건, 시도지정문화재 835건, 문화재 자료 593건, 국가등록문화재 66건을 보유하고 있음
- 경상북도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762건으로 국보 및 보물 456건, 사적·명승 121건, 천연기념물 72건, 무형문화재 15건, 민속문화재 98건으로 전체 문화재의 33.8%를 차지함
- 경상북도 시도지정문화재는 총 835건으로 유형문화재 489건, 무형문화재 40건, 기념물 152건, 민속문화재 154건으로 전체 문화재의 37.0%를 차지함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7> 문화재 지정 현황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국가 등록 문화재	문화재 자료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무형 문화재	국가 민속 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2,256	762	61	395	121	72	15	98	835	489	40	152	154	66	593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 경북북도의 지정 관광지는 2023년 7월 기준, 총 38개 지구 29,885㎡ 규모임
- 경상북도의 주요 축제는 2022년 기준, 총 21개가 개최되었으며, 이 중 문체부 지정 3개, 도 지정 13개, 개별축제 5개로 예산 규모는 13,222백만원으로 나타남
- 경북 동해안에는 2023년 1월 기준, 총 10개소의 해양관광(단)지가 지정되었으며, 관광지 7개 지구, 관광단지 3개 지구로 총 면적은 약 19.3km² 정도임
- 이 중 관광지는 포항시 1개 지구, 영덕·울진·울릉군에 각 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단지는 경주시(보문, 감포, 경주마우나오션)에 3개 지구가 분포함
- 관광특구는 경북 전체 3개 지구 중 동해안 지역에 2개 지구가 위치하며, 경주관광특구와 백암온천관광특구의 지정 면적은 약 34.39km² 정도이며, 경북 동해안에는 2023년 기준, 약 26개소의 주요 해수욕장(932,206㎡)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5,335천명임

3) 산업 경제적 여건

가. 경제지표 및 재정 현황

- 2020년도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의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 RCI)는 16위로 강원에 이어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낮으며, 시·군 단위 지역경쟁력 또한 매우 낮은 수

Ⅲ. 현황 여건 분석

준을 보이고 있어 기본역량과 효율성 역량의 상대적 약화에 기인하고 있음

- 2022년도 경상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115.3조원, 지역총소득은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100.9조원이며 경제성장률은 1.7% 증가하였음

<표 3-8> 지역소득 현황

구분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지역내총생산 (10억원)	전국대비비중 (%)	경제성장률 (%)	지역총소득 (10억원)	전국대비비중 (%)	지역내총생산 대비수준(%)
2018	109,023	5.7	-1.0	92,359	4.8	84.7
2019	107,312	5.6	1.8	92,924	4.8	86.6
2020	105,250	5.4	-2.9	94,197	4.8	89.5
2021	112,785	5.4	3.5	100,358	4.9	89.0
2022	115,341	5.3	1.7	100,901	4.6	87.5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 2023년 2/4분기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지표는 광공업의 경우 전국 평균 -7.4%보다 높은 -5.7%, 서비스업은 전국 평균 2.8%보다 다소 낮은 2.5%이며, 소매 판매는 전국 평균 -0.3%보다 높은 2.9%임
- 2023년 2/4분기 수출은 전국 평균 -12.0%보다 -1.1%로 크게 높고 고용률은 전국 평균 0.5%와 비슷한 0.6%이며, 소비자물가는 전국 평균 3.2%보다 다소 낮은 2.9%로 경북도민의 부담은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보임
- 2023년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본청의 경우 2020년 대비 28.7%에서 27.4%, 재정자주도는 42.9%에서 45.0%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대다수 시·군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나, 구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7.9%에서 27.6%로 하락하고 재정자주도는 53.7%에서 60.3%로 증가하여 높은 변동 폭을 보임

Ⅲ. 현황 여건 분석

- 2023년 재정력 지수는 경상북도 본청과 시·군 자치단체 모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지역 중심의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인구감소 등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미시의 경우 가장 불안정한 재정력 추이를 보이고 고령군과 울릉군의 경우 가장 안정적인 지수 추이를 보임(p118)
- 2022년 지방세 징수 추이는 2020년 이후 높은 증가 추이를 보여 공시지가 상승과 지방세 관련 세목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항시, 구미시, 김천시의 순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나. 농업 현황

- 경상북도 전체 농가 수는 169,523가구, 농가인구는 총 343,742명으로 경상북도 전체 인구의 12.9%를 차지하며, 해마다 감소 추세임
- 농가 구성은 상주시 13,614가구, 포항시 13,561가구, 김천시 12,869가구, 경주시 12,591가구, 안동시 11,993가구, 구미시 10,136가구, 의성군 8,793가구, 영천시 8,065가구, 영주시 8,042가구, 예천군 7,933가구, 문경시 7,635가구, 경산시 7,037가구, 청도군 6,691가구, 성주군 5,853가구, 봉화군 5,667가구, 청송군 5,494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가인구는 포항시 29,252명, 상주시 28,181명, 김천시 27,260명, 경주시 24,617명, 구미시 23,335명, 안동시 23,026명, 의성군 17,365명, 영주시 16,696명, 영천시 16,114명, 문경시 15,813명, 예천군 15,423명, 경산시 14,817명, 성주군 12,778명, 청도군 12,749명, 청송군 11,035명, 봉화군 10,58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여성 농가인구는 173,212명으로 여성 농가인구가 많은 지역은 포항시 14,926명, 상주시 14,608명, 김천시 13,687명, 경주시 12,357명, 구미시 11,647명, 안동시 11,3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 경상북도의 경지면적은 246,429ha로 해마다 감소 추세이며, 논 면적은 102,303ha로 전체 면적의 41.5%, 밭 면적은 144,126ha로 전체 면적의 58.5%를 차지함
-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상주시 24,362ha, 의성군 19,305ha, 안동시 18,073ha, 경주시 18,042ha, 예천군 16,583ha, 영천시 12,883ha, 영주시 12,695ha, 구미시 10,638ha, 봉화군 10,506ha, 문경시 10,458ha, 청도군 9,248ha, 경산시 8,393ha, 성주군 8,171ha, 청송군 7,378ha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9> 농업 현황

구분	농가(가구)	농가인구(명)	농가면적(ha)		
			계	논	밭
2018	176,385	376,562	262,049	118,813	143,236
2019	174,917	368,693	260,237	118,503	141,734
2020	165,754	351,375	257,323	117,936	139,387
2021	169,774	348,303	249,274	102,400	146,874
2022	169,523	343,742	246,429	102,303	144,126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다. 사업체 및 산업단지 현황

- 경상북도 총사업체 수는 333,276개소, 총종사자 수는 1,255,597명으로 경상북도 총인구의 47.2%를 차지함
-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72,987개소, 숙박 및 음식점업 54,907개소, 제조업 38,816개소, 건설업 33,498개소, 운수 및 창고업 32,852개소의 순이며,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 325,945명, 도매 및 소매업 144,474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0,136명, 숙박 및 음식점업 114,978명, 건설업 100,530명의 순으로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10> 산업별 사업체 현황

구분	계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사업체수	333,276	1,277	196	38,816	13,224	1,293	33,498
종사자수	1,255,597	7,384	1,612	325,945	20,958	10,780	100,530
구분	도매및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체수	72,987	32,852	54,907	2,295	2,696	8,715	6,272
종사자수	144,474	59,894	114,978	10,312	24,342	21,173	34,738
구분	사업시설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비고
사업체수	5,950	1,275	12,126	8,593	6,874	29,430	
종사자수	33,754	61,121	85,034	130,136	20,747	47,998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 2023년 2/4분기 기준 경북지역 산업단지는 총 162개이며, 지정면적은 167,509km²에 달하며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11개 102,786km², 일반산업단지 82개 50,033천km², 농공산업단지 69개 11,820km²임

<표 3-11> 산업단지 현황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단지수 (개소)	면적 (천m ²)	입주업체 (개소)	단지수 (개소)	면적 (천m ²)	입주업체 (개소)	단지수 (개소)	면적 (천m ²)	입주업체 (개소)
경상북도	11	102,786	2,874	82	53,033	2,525	69	11,820	1,125

출처 : 통계청, 통계정보(KOSIS)

2. 경상북도 경계지역 현황

1) 경상북도 경계지역 행정구역

- 경상북도의 경계지역은 시 7개 지역(경주시,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과 군 7개 지역(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으로 동쪽은 동해안, 서쪽은 충청북도·전라북도, 남쪽은 경상남도·울산, 북쪽으로는 강원도·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룸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12> 경상북도 경계지역과 인접지역 현황

경상북도 내 자치단체		경계지역 타 시도	
경주시	양남면, 와동읍, 내남면, 산내면	울산시	북구, 울주군
김천시	어모면,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충청북도 전라북도경 상남도	경상남도 거창 전라북도 무주 충청북도 영동
영주시	부석면, 단산면, 순흥면, 풍기읍, 봉현면	강원도 충청북도	단양 영월
영천시	신녕면, 청통면	대구시	동구
상주시	화북면, 화남면, 화동면, 모서면, 모동면, 공성면	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문경시	동로면, 문경읍, 마성면, 가은읍, 농암면	충청북도	괴산, 충주, 제천, 단양
경산시	와촌면, 하양읍, 압량면, 북부동, 서부2동, 서부1동, 남천면	대구시	수성구, 동구
청도군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청도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울산시 대구시 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달성군 경상남도 밀양, 창녕
고령군	다산면,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대가야읍, 덕곡면	경상남도 대구시	경상남도 합천, 창녕 달성군
성주군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선남면	대구시 경상남도	달성군 경상남도 거창, 합천
칠곡군	동명면, 지천면, 왜관읍	대구시	달성군, 북구
예천군	효자면	충청북도	단양
봉화군	석포면, 소천면, 춘양면, 물야면	강원도	영월, 태백, 삼척
울진군	북면, 금강송면	강원도	삼척

2)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현황

- 경계지역을 포함한 경상북도 거의 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경계지역의 전년 대비 인구 증감은 소폭이지만 성주군(1.31%), 고령군(0.55%), 경산시(0.27%), 예천군(0.1%), 영천시(0.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주시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0.03%)으로 소폭 감소함

Ⅲ. 현황 여건 분석

나. 경제 현황

- 경상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경계지역에서 지난 5년간 지역내총생산이 감소한 지역은 경주(-8,673억원), 울진군(-1,064억원), 고령군(-840억원), 청도군(-88억원)으로 나타남
- 경계지역 중 지역내총생산 순위가 높은 지역은 경주(도내 3위), 낮은 지역은 청도군(도내 18위)으로 나타났으며, 상주시는 도내 10위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경상북도의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은 11,300천원으로 경계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봉화군(16,211천원), 가장 낮은 지역은 경산시(4,135천원)이며, 상주시는 경상북도 평균보다 소폭 낮은 11,181천원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의 재정자주도는 대체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며, 문경시의 경우 경상북도 도내 및 경계지역에서 모두 1위로 가장 높으며 고령군은 도내 및 경계지역에서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음. 상주시의 재정자주도는 22개 시·군 중 15위로 낮게 나타남

3) 생활SOC 현황

가. 조사 대상 및 기준

- 정부가 추진한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들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각 시·군별 현황을 조사하고, 중점 조사 지역으로는 상주시를 설정함
- 생활SOC 시설들은 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공원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원, 공원 등의 기존 시설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함
- 현황 조사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시간 거리’에 대한 개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생활SOC 공급 목표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함

Ⅲ. 현황 여건 분석

나. 분야별 생활SOC 현황

① 보육시설

■ 국공립어린이집(이용대상: 0세~만6세 미만 영·유아)

- 경계지역 시·군의 국공립어린이집은 129개소로 경산시 23개소, 영천시 14개소, 경주시 12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군 3개소, 봉화군 4개소, 문경시·청도군·성주군 5개소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영·유아 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주시, 김천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봉화군으로 나타남

<표 3-13> 경상북도 국·공립어린이집

구 분	영·유아인구(명)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6,529	12	544
김천시	4,349	8	544
영주시	2,230	11	203
영천시	2,782	14	199
상주시	2,074	11	189
문경시	1,629	5	326
경산시	8,069	23	351
청도군	650	5	130
고령군	551	3	184
성주군	905	5	181
칠곡군	2,843	9	316
예천군	2,034	10	203
봉화군	474	4	119
울진군	1,239	9	138
포항시	15,040	21	716
안동시	4,153	16	260
구미시	15,057	23	655
의성군	937	7	134
청송군	451	4	113
영양군	251	4	63
영덕군	592	4	148
울릉군	165	1	165
경상북도 계	73,004	209	340

출처 : <https://www.daycarekorea.com/child/>, <https://www.gb.go.kr>

Ⅲ. 현황 여건 분석

■ 다함께돌봄센터(이용대상: 만6세~12세 초등학생)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 중심의 공적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방학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계지역 시·군의 다함께돌봄센터는 39개소로 경주시 7개소, 예천군 6개소, 영천시와 경산시 4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주시·문경시·성주군·봉화군 등이 1개소로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초등학생 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상주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청도군으로 나타남

<표 3-14> 경상북도 다함께돌봄센터

구 분	초등인구(명)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12,202	7	1,743
김천시	7,523	2	3,762
영주시	4,910	3	1,637
영천시	3,829	4	957
상주시	4,018	1	4,018
문경시	2,953	1	2,953
경산시	15,365	4	3,841
청도군	1,116	3	372
고령군	957	2	479
성주군	1,155	1	1,155
칠곡군	7,029	2	3,515
예천군	3,449	6	575
봉화군	903	1	903
울진군	2,020	2	1,010
포항시	30,935	6	5,156
안동시	7,941	5	1,588
구미시	30,812	11	2,801
의성군	1,183	4	296
청송군	670	1	670
영양군	492	1	492
영덕군	1,132	2	566
울릉군	268	0	-
경상북도 계	140,862	69	2,041

출처 : <https://dadol.or.kr/>, <https://www.gb.go.kr>

Ⅲ. 현황 여건 분석

■ 공동육아나눔터(이용대상: 만12세 이하 자녀와 보호자)

-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경감 및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함
- 경계지역 시·군의 공동육아나눔터는 18개소로 경주시가 7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외 지역별 1~2개소 또는 미설치 지역이 다수임
- 경계지역에서 아이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김천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청도군으로 나타남

<표 3-15> 경상북도 공동육아나눔터

구 분	아이인구(명)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18,731	7	2,676
김천시	11,872	1	11,872
영주시	7,140	-	-
영천시	6,611	-	-
상주시	6,092	2	3,046
문경시	4,582	1	4,582
경산시	23,434	2	11,717
청도군	1,766	1	1,766
고령군	1,508	-	-
성주군	2,060	1	2,060
칠곡군	9,872	1	9,872
예천군	5,483	1	6,972
봉화군	1,377	-	-
울진군	3,259	1	3,259
포항시	45,975	2	22,988
안동시	12,094	2	6,047
구미시	45,869	5	9,174
의성군	2,120	2	1,060
청송군	1,121	-	-
영양군	743	-	-
영덕군	1,724	1	1,724
울릉군	433	-	-
경상북도 계	213,866	30	7,129

출처 : <https://www.familynet.or.kr>, <https://www.gb.go.kr>

② 문화·체육시설

Ⅲ. 현황 여건 분석

■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함
- 경계지역 시·군의 공공도서관은 41개소로 경주시 7개소, 문경시 5개소, 영주시·칠곡군 4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김천시·봉화군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2~3개소로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총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김천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문경시로 나타남

<표 3-16>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구 분	총인구(명)	공공도서관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257,743	7	36,820
김천시	139,936	1	139,936
영주시	101,272	4	25,318
영천시	103,703	2	51,852
상주시	94,971	3	31,657
문경시	69,105	5	13,821
경산시	282,072	3	94,024
청도군	42,236	2	21,118
고령군	32,042	2	16,021
성주군	43,986	2	21,993
칠곡군	114,485	4	28,621
예천군	55,681	2	27,841
봉화군	29,754	1	29,754
울진군	48,200	3	16,067
포항시	499,576	10	49,958
안동시	154,449	6	25,742
구미시	411,204	7	58,743
의성군	50,485	2	25,243
청송군	24,194	2	12,097
영양군	15,799	1	15,799
영덕군	35,106	1	35,106
울릉군	9,215	1	9,215
경상북도 계	2,615,214	71	36,834

출처 : <https://www.gb.go.kr>

■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

Ⅲ. 현황 여건 분석

확단)가 사업을 총괄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서관을 말하며, 공공도서관 보급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과 생활SOC 복합시설 내 집중 확충

- 경계지역 시·군의 작은도서관은 173개소로 경산시 27개소, 경주시 25개소, 칠곡군 24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청도군이 2개소, 성주군 3개소, 봉화군 4개소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총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청도군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예천군으로 나타남

<표 3-17>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구 분	총인구(명)	작은도서관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257,743	25	10,310
김천시	139,936	13	10,764
영주시	101,272	8	12,659
영천시	103,703	11	9,428
상주시	94,971	13	7,305
문경시	69,105	10	6,911
경산시	282,072	27	10,447
청도군	42,236	2	21,118
고령군	32,042	5	6,408
성주군	43,986	3	14,662
칠곡군	114,485	24	4,770
예천군	55,681	20	2,784
봉화군	29,754	4	7,439
울진군	48,200	8	6,025
포항시	499,576	59	8,467
안동시	154,449	11	14,041
구미시	411,204	43	9,535
의성군	50,485	9	5,609
청송군	24,194	3	8,065
영양군	15,799	2	7,900
영덕군	35,106	3	11,702
울릉군	9,215	1	9,215
경상북도 계	2,615,214	304	8,603

출처 : <https://www.smalllibrary.org>, <https://www.gb.go.kr>

■ 공공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사회 등 공공법인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제공하기 위

Ⅲ. 현황 여건 분석

하여 설치·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문화체육부가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의 보유 현황 및 시설별 세부 내역을 종합하기 위해 23종으로 분류함

- 경계지역 시·군의 공공체육시설은 2,587개소로 상주시 623개소, 칠곡군 297개소, 영천시 257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주군이 42개소, 울진군 52개소, 고령군 56개소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총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산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상주시로 나타남

<표 3-18> 경상북도 공공체육시설

구 분	총인구(명)	공공체육시설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259,554	212	1,224
김천시	142,112	217	655
영주시	101,724	85	1,197
영천시	103,932	257	404
상주시	96,158	623	154
문경시	71,061	220	323
경산시	279,717	98	2,854
청도군	42,568	231	184
고령군	31,922	56	570
성주군	44,199	42	1,052
칠곡군	116,629	297	393
예천군	56,262	138	408
봉화군	30,469	59	516
울진군	48,675	52	936
포항시	503,003	150	3,353
안동시	156,173	599	261
구미시	413,100	625	661
의성군	50,795	325	156
청송군	24,549	29	847
영양군	16,284	20	814
영덕군	35,742	110	325
울릉군	9,123	12	760
경상북도 계	2,633,751	4,457	580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 청소년수련시설(이용대상 : 만9세~만24세)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Ⅲ. 현황 여건 분석

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텔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함

- 경계지역 시·군의 청소년수련시설은 40개소로 경주시가 가장 많은 14개소, 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 등이 가장 적은 1개소로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청소년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산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봉화군으로 나타남

<표 3-19>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시설

구 분	청소년인구(명)	청소년수련시설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31,927	14	2,281
김천시	19,084	2	9,542
영주시	14,313	3	4,771
영천시	10,745	2	5,373
상주시	11,382	2	5,691
문경시	8,258	4	2,065
경산시	42,874	2	21,437
청도군	3,313	1	3,313
고령군	2,823	1	2,823
성주군	3,440	1	3,440
칠곡군	16,649	3	5,550
예천군	6,923	1	6,923
봉화군	2,565	2	1,283
울진군	5,264	2	2,632
포항시	98,426	3	32,809
안동시	21,422	3	7,141
구미시	70,764	4	17,691
의성군	3,416	2	1,708
청송군	1,765	1	1,765
영양군	1,364	2	682
영덕군	2,911	4	728
울릉군	803	1	803
경상북도 계	380,431	60	6,341

출처 : <https://www.gb.go.kr>, 경북통계연보(2023)

■ 국민체육센터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란 언제 어디서나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민센터를 말하며, 인구와 기존 체육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생활체육 서비스 사각지대가

Ⅲ. 현황 여건 분석

생기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성장형, 도시특화형, 소도시성장형, 소도시특화형 4가지 유형이 있음

- 경계지역 시·군의 국민체육센터는 17개소로 칠곡군이 3개소, 상주시·울진군이 2개소이며 그 외 시·군은 1개소, 영천시는 개관 예정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반다비체육센터는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가 처음 개관하였으며, 영주시·경주시·울진군 등이 선정되어 추진 예정임
- 경계지역에서 총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산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봉화군으로 나타남

<표 3-20> 경상북도 국민체육센터

구 분	총인구(명)	국민체육센터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257,743	1	257,743
김천시	139,936	1	139,936
영주시	101,272	1	101,272
영천시	103,703	1(예정)	-
상주시	94,971	2	47,486
문경시	69,105	1	69,105
경산시	282,072	1	282,072
청도군	42,236	1	42,236
고령군	32,042	1	32,042
성주군	43,986	1	43,986
칠곡군	114,485	3	38,162
예천군	55,681	1	55,681
봉화군	29,754	1	29,754
울진군	48,200	2	24,100
포항시	499,576	4	124,894
안동시	154,449	1	154,449
구미시	411,204	2	205,602
의성군	50,485	2	25,243
청송군	24,194	1	24,194
영양군	15,799	1	15,799
영덕군	35,106	1	35,106
울릉군	9,215	1	9,215
경상북도 계	2,615,214	31	84,362

출처 : <https://www.gb.go.kr>

■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공존

Ⅲ. 현황 여건 분석

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문화 공동체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 입지와 규모에 따라 거점형, 생활권형으로 구분되며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체험·창작 활동을 지원함

- 경계지역 시·군의 생활문화센터는 8개소로 경주시·상주시·경산시가 2개소, 문경시·성주군 1개소, 청도군이 '24년 개관 예정임
- 경계지역에서 총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성주군으로 나타남

<표 3-21> 경상북도 생활문화센터

구 분	총인구(명)	생활문화센터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257,743	2	128,872
김천시	139,936	-	-
영주시	101,272	-	-
영천시	103,703	-	-
상주시	94,971	2	47,486
문경시	69,105	1	69,105
경산시	282,072	2	141,036
청도군	42,236	(예정)	-
고령군	32,042	-	-
성주군	43,986	1	43,986
칠곡군	114,485	-	-
예천군	55,681	-	-
봉화군	29,754	-	-
울진군	48,200	-	-
포항시	499,576	2	249,788
안동시	154,449	-	-
구미시	411,204	1	411,204
의성군	50,485	1	50,485
청송군	24,194	-	-
영양군	15,799	-	-
영덕군	35,106	1	35,106
울릉군	9,215	-	-
경상북도 계	2,615,214	13	201,170

출처 : <https://www.gb.go.kr>

③ 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

Ⅲ. 현황 여건 분석

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 영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함

- 경계지역 시·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78개소로 경산시 58개소, 김천시 43개소, 칠곡군 24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울진군 3개소, 봉화군 5개소, 고령군·예천군 7개소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노인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진군이며, 가장 낮은 곳은 김천시로 나타남

<표 3-22> 경상북도 노인의료 복지시설

구 분	노인인구(명)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개소	수용인원	
경주시	61,861	23	753	2,690
김천시	34,794	43	1,274	809
영주시	29,754	21	874	1,417
영천시	30,867	22	583	1,403
상주시	31,923	21	843	1,520
문경시	22,867	21	705	1,089
경산시	49,716	58	1,884	857
청도군	16,896	14	412	1,207
고령군	10,497	7	292	1,500
성주군	14,978	9	381	1,664
칠곡군	20,009	24	852	834
예천군	17,638	7	353	2,520
봉화군	11,980	5	351	2,396
울진군	14,284	3	250	4,761
포항시	98,684	41	1,582	2,407
안동시	41,265	17	912	2,427
구미시	45,239	48	1,715	942
의성군	22,213	18	612	1,234
청송군	9,822	5	315	1,964
영양군	6,406	5	192	1,281
영덕군	14,006	5	313	2,801
울릉군	2,511	1	60	2,511
경상북도 계	608,210	418	15,508	1,465

출처 : 제63회 경북 통계연보

■ 지역아동센터(이용대상: 만6세~만18세 미만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Ⅲ. 현황 여건 분석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계지역 시·군의 지역아동센터는 129개소로 경주시 28개소, 경산시 22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울진군 1개소, 청도군·봉화군이 2개소로 낮게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아동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진군이며, 가장 낮은 곳은 고령군으로 나타남

<표 3-23>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구 분	아동인구(명)	지역아동센터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22,101	28	789
김천시	13,913	12	1,159
영주시	9,540	10	954
영천시	7,163	7	1,023
상주시	7,948	8	994
문경시	5,616	9	624
경산시	26,555	22	1,207
청도군	2,251	2	1,126
고령군	1,886	5	377
성주군	2,291	4	573
칠곡군	12,486	12	1,041
예천군	5,755	7	822
봉화군	1,783	2	892
울진군	3,652	1	3,652
포항시	79,992	64	1,250
안동시	14,370	11	1,306
구미시	52,545	47	1,118
의성군	2,344	7	335
청송군	1,176	3	392
영양군	957	3	319
영덕군	2,049	4	512
울릉군	470	1	470
경상북도 계	276,843	269	1,029

출처 : <https://www.data.go.kr>, <https://www.gb.go.kr>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용대상 : 만9세~만24세)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계지역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개소로 모든 지역에

Ⅲ. 현황 여건 분석

1개소가 있음

- 경계지역에서 청소년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산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봉화군으로 나타남

<표 3-24> 경상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구 분	청소년인구(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31,927	1	31,927
김천시	19,084	1	19,084
영주시	14,313	1	14,313
영천시	10,745	1	10,745
상주시	11,382	1	11,382
문경시	8,258	1	8,258
경산시	42,874	1	42,874
청도군	3,313	1	3,313
고령군	2,823	1	2,823
성주군	3,440	1	3,440
칠곡군	16,649	1	16,649
예천군	6,923	1	6,923
봉화군	2,565	1	2,565
울진군	5,264	1	5,264
포항시	98,426	1	98,426
안동시	21,422	2	10,711
구미시	70,764	1	70,764
의성군	3,416	1	3,416
청송군	1,765	1	1,765
영양군	1,364	1	1,364
영덕군	2,911	1	2,911
울릉군	803	-	803
경상북도 계	380,431	22	17,292

출처 : <https://www.kyci.or.kr>, <https://www.gb.go.kr>

■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 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가족 상담과 문화, 교육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형성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계지역 시·군의 가족센터는 14개소로 모든 지역에 1개소가

Ⅲ. 현황 여건 분석

있음

- 경계지역에서 총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산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봉화군으로 나타남

<표 3-25> 경상북도 가족센터

구 분	총인구(명)	가족센터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257,743	1	257,743
김천시	139,936	1	139,936
영주시	101,272	1	101,272
영천시	103,703	1	103,703
상주시	94,971	1	94,971
문경시	69,105	1	69,105
경산시	282,072	1	282,072
청도군	42,236	1	42,236
고령군	32,042	1	32,042
성주군	43,986	1	43,986
칠곡군	114,485	1	114,485
예천군	55,681	1	55,681
봉화군	29,754	1	29,754
울진군	48,200	1	48,200
포항시	499,576	1	499,576
안동시	154,449	1	154,449
구미시	411,204	2	206,602
의성군	50,485	1	50,485
청송군	24,194	1	24,194
영양군	15,799	1	15,799
영덕군	35,106	1	35,106
울릉군	9,215	1	9,215
경상북도 계	2,615,214	23	113,705

출처 : <https://www.familynet.or.kr>, <https://www.gb.go.kr>

④ 의료시설

■ 병원 의료기관

- 경계지역 시·군의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등을 포함한 병원 의료기관은 687개소로 경산시 167개소, 경주시 127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봉화군 9개소, 고령군 13개소, 성주군 18개소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종합병원은 김천시와 상주시에 2개소, 경주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에 각 1개소가 있음
- 경계지역에서 총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Ⅲ. 현황 여건 분석

지역은 봉화군이며, 가장 낮은 곳은 문경시로 나타남

<표 3-26> 경상북도 병원 의료기관

구 분	총인구(명)	의료기관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병원수	병상수	
경주시	259,554	127	1,067	2,044
김천시	142,112	60	656	2,369
영주시	101,724	57	758	1,785
영천시	103,932	37	334	2,809
상주시	96,158	46	509	2,090
문경시	71,061	45	842	1,579
경산시	279,717	167	1,369	1,675
청도군	42,568	20	321	2,128
고령군	31,922	13	79	2,456
성주군	44,199	18	69	2,456
칠곡군	116,629	50	385	2,333
예천군	56,262	21	175	2,679
봉화군	30,469	9	93	3,385
울진군	48,675	17	95	2,863
포항시	503,003	289	3,185	1,740
안동시	156,173	82	2,334	1,905
구미시	413,100	241	1,821	1,714
의성군	50,795	19	268	2,673
청송군	24,549	9	-	2,728
영양군	16,284	2	50	8,142
영덕군	35,742	19	91	1,881
울릉군	9,123	-	-	-
경상북도 계	2,633,751	1,348	14,501	1,960

출처 : 제63회 경북 통계연보

■ 보건 의료기관

- 경계지역 시·군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보건 의료기관은 534개소이며, 이 중 보건소는 24개소, 보건지소는 214개소, 보건진료소는 296개소임
- 보건 의료기관은 상주시 44개소, 김천시 32개소, 경주시 29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봉화군 17개소, 고령군·칠곡군 18개소, 경산시·청도군 19개소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총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산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고령군으로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27> 경상북도 보건 의료기관

구 분	총인구(명)	계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경주시	259,554	29	1	12	16	8,950
김천시	142,112	32	1	15	16	4,441
영주시	101,724	24	1	10	13	4,239
영천시	103,932	25	1	11	13	4,157
상주시	96,158	44	1	18	25	2,185
문경시	71,061	23	1	9	13	3,090
경산시	279,717	19	1	8	10	14,722
청도군	42,568	19	1	8	10	2,240
고령군	31,922	18	1	7	10	1,773
성주군	44,199	21	1	9	11	2,105
칠곡군	116,629	18	1	7	10	6,479
예천군	56,262	27	1	10	16	2,084
봉화군	30,469	17	1	9	7	1,792
울진군	48,675	26	1	9	16	1,872
포항시	503,003	38	2	14	22	13,237
안동시	156,173	38	1	12	25	4,110
구미시	413,100	2	1	1	-	206,550
의성군	50,795	39	1	17	21	1,302
청송군	24,549	15	1	6	8	1,637
영양군	16,284	14	1	5	8	1,163
영덕군	35,742	22	1	8	13	1,625
울릉군	9,123	6	1	2	3	1,521
경상북도계	2,633,751	516	23	207	286	5,104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 건강생활지원센터(주민건강센터)

-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 으로서 만성질환 관리, 신체활동 및 영양사업, 금연·절주사업, 치매예방 및 관리 등 주민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함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에 포함하지 않아 처방전 발급 및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불가하여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Ⅲ. 현황 여건 분석

- 2024년 기준 경상북도에는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구미시, 안동시, 청도군, 울진군, 봉화군 등 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소가 경계지역에 있음

<표 3-28> 경상북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구 분	총인구(명)	주민건강센터 (개소)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경주시	257,743	1	257,743
김천시	139,936	1	139,936
영주시	101,272	-	-
영천시	103,703	-	-
상주시	94,971	1	94,971
문경시	69,105	-	-
경산시	282,072	-	-
청도군	42,236	1	42,236
고령군	32,042	-	-
성주군	43,986	-	-
칠곡군	114,485	-	-
예천군	55,681	-	-
봉화군	29,754	1	29,754
울진군	48,200	1	48,200
포항시	499,576	-	-
안동시	154,449	1	154,449
구미시	411,204	1	206,602
의성군	50,485	-	-
청송군	24,194	-	-
영양군	15,799	-	-
영덕군	35,106	-	-
울릉군	9,215	-	-
경상북도 계	2,615,214	8	326,902

출처 : <https://www.gb.go.kr>

⑤ 교통시설

■ 주차장

- 노상·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포함함
- 경계지역 시·군의 주차장은 64,631개소/1,363,085면으로 경주시 16,016개소/217,821면, 경산시 7,843개소/154,584면, 칠곡군 12,808개소/104,437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천시 103개소/5,491면, 청도군 347개소/7,002면, 봉화군 821개소/9,383면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총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Ⅲ. 현황 여건 분석

지역은 영천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경주시, 칠곡군으로 나타남

<표 3-29> 경상북도 주차장

구 분	총인구(명)	주차장		기관당(면수) 서비스인구수(명)
		개소	면수	
경주시	259,554	16,016	217,821	1
김천시	142,112	4,750	73,308	2
영주시	101,724	4,991	17,060	6
영천시	103,932	103	5,491	19
상주시	96,158	3,208	42,607	2
문경시	71,061	2,836	24,440	3
경산시	279,717	7,843	154,584	2
청도군	42,568	347	7,002	6
고령군	31,922	3,031	15,001	2
성주군	44,199	5,966	23,644	2
칠곡군	116,629	12,808	104,437	1
예천군	56,262	1,438	21,778	3
봉화군	30,469	821	9,383	3
울진군	48,675	473	14,701	3
포항시	503,003	12,934	276,674	2
안동시	156,173	5,101	57,755	3
구미시	413,100	15,712	264,098	2
의성군	50,795	1,504	10,782	5
청송군	24,549	596	4,669	5
영양군	16,284	641	7,433	2
영덕군	35,742	1,959	6,091	6
울릉군	9,123	558	4,326	2
경상북도 계	2,633,751	103,636	1,363,085	2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⑥ 공원시설: 생활권 공원

■ 어린이공원

- 경계지역 시·군의 어린이공원은 346개소로 경산시 95개소, 경주시 60개소, 칠곡군 42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봉화군 2개소, 고령군 3개소, 청도군 5개소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어린이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봉화군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성주군으로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30> 경상북도 어린이공원

구 분	어린이인구(명)	어린이공원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개소	면적(km ²)	
경주시	18,731	60	133.7	312
김천시	11,872	30	58.8	396
영주시	7,140	14	25.4	510
영천시	6,611	14	28.3	472
상주시	6,092	13	25.4	469
문경시	4,582	28	57.2	164
경산시	23,434	95	206.4	247
청도군	1,766	5	12.0	353
고령군	1,508	3	9.2	503
성주군	2,060	13	24.2	158
칠곡군	9,872	42	116.9	235
예천군	5,483	15	62.1	366
봉화군	1,377	2	3.2	689
울진군	3,259	12	26.4	272
포항시	45,975	209	468.1	220
안동시	12,094	40	81.2	302
구미시	45,869	181	352.5	253
의성군	2,120	7	12.4	303
청송군	1,121	4	10.5	280
영양군	743	-	-	-
영덕군	1,724	8	18.6	216
울릉군	433	5	13.3	87
경상북도 계	213,866	800	1,745.8	267

출처 : <https://www.gb.go.kr>, 경북통계연보(2023)

■ 근린공원

- 경계지역 시·군의 근린공원은 177개소로 경산시 44개소, 경주시 20개소, 칠곡군 18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청도군 2개소, 봉화군 3개소, 문경시·성주군 5개소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경계지역에서 총인구 기준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청도군이며, 가장 낮은 곳은 고령군으로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31> 경상북도 근린공원

구 분	총인구(명)	근린공원		기관당 서비스인구수(명)
		개소	면적(km ²)	
경주시	259,554	20	1,495.1	12,978
김천시	142,112	15	1,900.7	9,474
영주시	101,724	16	1,058.7	6,358
영천시	103,932	11	617.2	9,448
상주시	96,158	13	751.1	7,397
문경시	71,061	5	215.1	14,212
경산시	279,717	44	3,355.6	6,357
청도군	42,568	2	146.2	21,284
고령군	31,922	8	205.4	3,990
성주군	44,199	5	116.4	8,840
칠곡군	116,629	18	540.7	6,479
예천군	56,262	9	665.5	6,251
봉화군	30,469	3	106.4	10,156
울진군	48,675	8	548.8	6,084
포항시	503,003	63	7,516.1	7,984
안동시	156,173	27	3,289.5	5,784
구미시	413,100	57	8,295.5	7,247
의성군	50,795	3	513.1	16,932
청송군	24,549	6	251.5	4,092
영양군	16,284	3	84.9	5,428
영덕군	35,742	6	1,232.0	5,957
울릉군	9,123	1	10.7	9,123
경상북도 계	2,633,751	343	32,916.2	7,679

출처 : 경북통계연보(2023)

다. 요약 및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의 국가최저기준은 도보 5분내(250m) 접근, 보건복지부 공급 기준은 영유아 500명당 1개소이며, 경상북도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기관당 서비스 인구는 340명이나 경주시·김천시의 경우 544명으로 국가 공급 목표와 경북 평균보다 공급 수준이 낮음
- 경상북도 다함께돌봄센터의 평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는 2,041명으로 상주시(4,018명), 경산시(3,841명), 김천시(3,782명), 칠곡군(3,515명), 문경시(2,953명)가 경북 평균보다 공급 수준이 낮음
- 경상북도 공동육아나눔터의 평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는 7,129명으로 김천시(11,872명), 경산시(11,717명), 칠곡군(9,872명)이

Ⅲ. 현황 여건 분석

경북 평균보다 많으며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봉화군은 미설치 지역임

- 경상북도 공공도서관의 평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는 36,834명으로 김천시(139,936명), 경산시(94,024명), 영천시(51,852명)가 경북 평균보다 공급 수준이 낮음
 - 선진국 공공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는 일본 3.9만명, 미국 3.4만명, 영국 1.5만명, 독일 1.1만명임
- 경상북도 작은도서관의 평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는 8,603명으로 청도군(21,118명), 성주군(14,662명), 영주시(12,659명), 김천시(10,764명), 경산시(10,447명), 경주시(10,310명), 영천시(9,428명)가 경북 평균보다 공급 수준이 낮음
- 경상북도 국민체육센터의 평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는 84,362명으로 경산시(282,072명), 경주시(257,743명), 김천시(139,936명), 영천시(103,703명), 영주시(101,272명)가 경북 평균보다 공급 수준이 낮음
 - 공급 목표 : 수영장 1개소당 8.5만명, 체육관 1개소당 3.4만명 (수영장: 일본 3.3만명, 호주 3.3만명, 체육관: 일본 1.4만명)
 - 포항(4개소), 칠곡(3개소), 상주(2개소), 울진(2개소)을 제외한 경북 대부분 지역이 1개소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임. 포항이 4개소로 시설 수가 가장 많으나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가 124,894명으로 많은 편임
 -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여 획일적 구성이 아닌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모델화된 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함.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욕구 반영이 필요함
- 워라벨 문화 확산 등 여가 시간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강연·연습·발표 공간의 확대 필요성으로 생활문화센터는 기초지자체 당 1.3개 이상, 문화예술교육전용공간(꿈꾸는예술터)은 광역지자체 당 1개 내외를 공급 목표로 전국에서 추진 중

Ⅲ. 현황 여건 분석

- 24년 현재, 경상북도 내 생활문화센터는 13개소(시·군당 0.6개소)이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 시 작은 공간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하여 추진 필요
- 경상북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평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는 1,465명으로 김천시(809명), 경산시(857명), 칠곡군(834명), 구미시(942명)를 제외한 대부분 경상북도 시·군 지역이 경북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많으며, 울진군(4,761명), 경주시(2,690명), 예천군(2,520), 봉화군(2,396명)은 서비스 인구수가 특히 많은 지역으로 경계지역 대부분 개선이 시급함
- 2023년 기준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6,147개인데 반해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122개(1.95%)에 불과함. 특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함
- 또한, 농·산·어촌 지역은 수익 부족을 이유로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설치를 기피해 지방 어르신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에 큰 제한을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수 대비 노인 인구수 현황(2023년)’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 1개소당 노인 수요는 평균 1,552명에 달하며,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기준으로는 부산 745,199명, 인천 497,057명, 경기 212,272명, 경남 111,608명, 경북 105,081명임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는 1,029명으로 특히, 울진군(3,652명)이 경북 평균보다 많으며, 경산시(1,207명), 김천시(1,159명), 청도군(1,126명), 칠곡군(1,041명)은 경북 평균보다 공급 수준이 다소 낮음
- 경상북도의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계지역을 포함한 각 시·군별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2014년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경상북도의 병원의료기관의 평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는 1,960

Ⅲ. 현황 여건 분석

명으로 영주시(1,785명), 포항시(1,740명), 구미시(1,714명), 경산시(1,675명), 문경시(1,579명)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 지역이 경북 평균보다 많으며, 특히 봉화군(3,385명), 영양군(8,142명)과 울릉군이 심각함

- 경상북도의 보건의료기관의 평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는 5,104명으로 병원의료기관에 비해 2.6배나 많아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구미시(206,550명), 경산시(14,722명), 포항시(13,237명), 경주시(8,950명), 칠곡군(6,479명)이 경북 평균보다 공급 수준이 낮음
 -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제로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5.4%)과 공공 병상 비율(10.3%)이 OECD 최하위임
- 건강생활지원센터(주민건강센터)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당 평균 0.5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경상북도 내에는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구미시, 안동시, 청도군, 울진군, 봉화군 등 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소가 경계지역에 있음
- 경상북도 주차장의 평균 주차면 당 서비스 인구수는 2명으로 영천시(19명), 영주시·청도군·영덕군(6명), 의성군·청송군(5명) 등이 경북 평균보다 공급 수준이 낮음
 - 생활SOC 3개년 계획의 공급목표는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 70%,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로 사업을 추진함
 - 기존 공공시설 및 신규 생활SOC와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
- 경상북도 경계지역의 분야별 공급이 특히 부족한 지역으로는 보육 분야는 경주시·김천시·상주시·경산시·칠곡군, 문화·체육 분야는 김천시·경산시·경주시·청도군·성주군, 노인복지 분야는 울진군·경주시·예천군·봉화군, 아동복지 분야는 울진군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 또한,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병원의료기관은 봉화군, 보건의료기관은 경산시·경주시·칠곡군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분야는 영천시·영주시·청도군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 SOC 19개 항목(보육시설 3개, 문화·체육시설 6개, 복지시설 4개, 의료시설 3개, 교통시설 1개, 공원시설 2개)에 대한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 분석 결과, 교통시설(주차장)을 제외한 공급이 가장 우수한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의 기관당 서비스 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정원 충족률이 낮아져 공급량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됨

<표 3-32> 생활SOC 3개년계획 공급 목표

구 분	생활SOC3개년계획			국가최저기준/ 부처공급기준
	복합화 13종	관계 부처	공급기준·목표(22)	
보육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공보육40%) - 5,700여개(33.6만명) • 직장: 1,600여개(8.5만명) 	도보5분, 250m/ 500인당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0여개(9만명)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나눔터 1만명 • 지역아동센터 8.2만명 	
문화· 체육	공공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분내 접근(1,200여개) - 4.3만명/개소(선진국 90%) - 문화·돌봄 등과 복합 - 노후시설 리모델링 	차량 15분/ 차량10분,4만명당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천명/개소(6,700여개)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관 - 10분내 접근(1,400여개) - 3.4만명/개소(선진국 60%) • 공공수영장 - 15분내 접근(600여개) - 8.5만명/개소(선진국 55%) • 야구장, 축구장 - 30분내 접근 	
	생활문화센터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당 1.3개(300여개) 	
복지	공립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당 1.1개(240여개)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230여개(기능보강24개) 	
의료	주민건강센터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당 0.5개(110여개) 	
교통	주거지주차장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만여면 추가확충 	
	전통시장주차장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생활편의	로컬푸드복합센터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인프라 구축과 연계 	

Ⅲ. 현황 여건 분석

3. 상주시 일반 현황

1) 자연환경

가. 지역 현황

- 「경상북도의 서북부 내륙에 위치한 도농복합형의 도시로 서측으로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충북 보은, 옥천, 괴산군, 남측으로는 김천시와 구미시, 충북 영동군, 동북측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문경시와 예천군에 접해 있는 경상북도 북부의 교통의 요충지
-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청원~상주간고속도로 및 국도 3호선과 국도 25호선의 결절지점으로 충청지역과 경상지역의 관문 역할을 담당

<표 3-33> 상주시의 경·위도상의 위치

방위	지명	경도와 위도	
		동경	북위
동극	중동면 우물리	128°21'28"	-
서극	화북면 운흥리	127°47'55"	-
남극	공성면 이화리	-	36°14'06"
북극	화북면 입석리	-	36°39'14"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2023)

<그림 3-6> 상주시의 위치



Ⅲ. 현황 여건 분석

나. 지형·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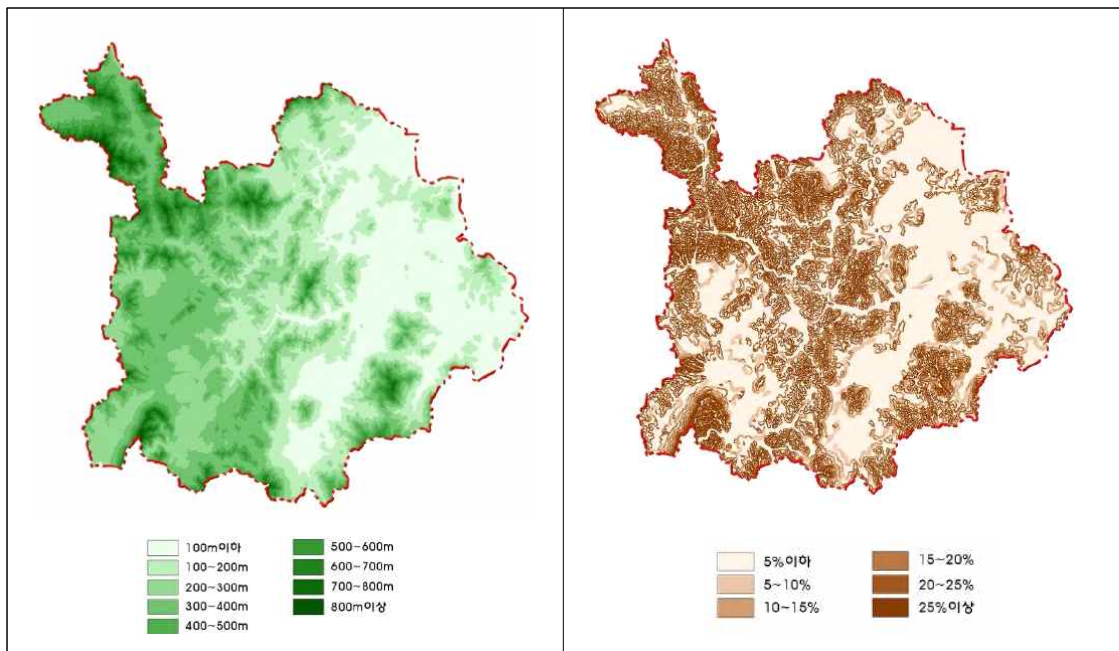
① 지형

- 「서측은 속리산, 백화산 등으로 구성된 산악지형이며, 동측으로는 낙동강 지류를 따라 발달한 평야지대인 서고동저형의 지
- 동지역 및 함창읍 등 동부 평야지대는 평균고도 100m 내외이며, 소백산맥의 동사면인 서부지역은 하천, 분지를 제외하고는 300m 이상 산간지대 형성
- 대부분의 개발가능지가 중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상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지역의 개발방안 모색이 필요함

② 경사

- 경사도 10% 미만의 지형이 상주 전체면적의 57.1%인 716.5km²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가능지가 풍부하며 그 대부분이 상주 동부지역에 분포해 있음
- 산악지형이 많은 서부지역은 경사도 20% 이상의 산지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이 필요함

<그림 3-7> 상주시 표고·경사도



Ⅲ. 현황 여건 분석

③ 산악 및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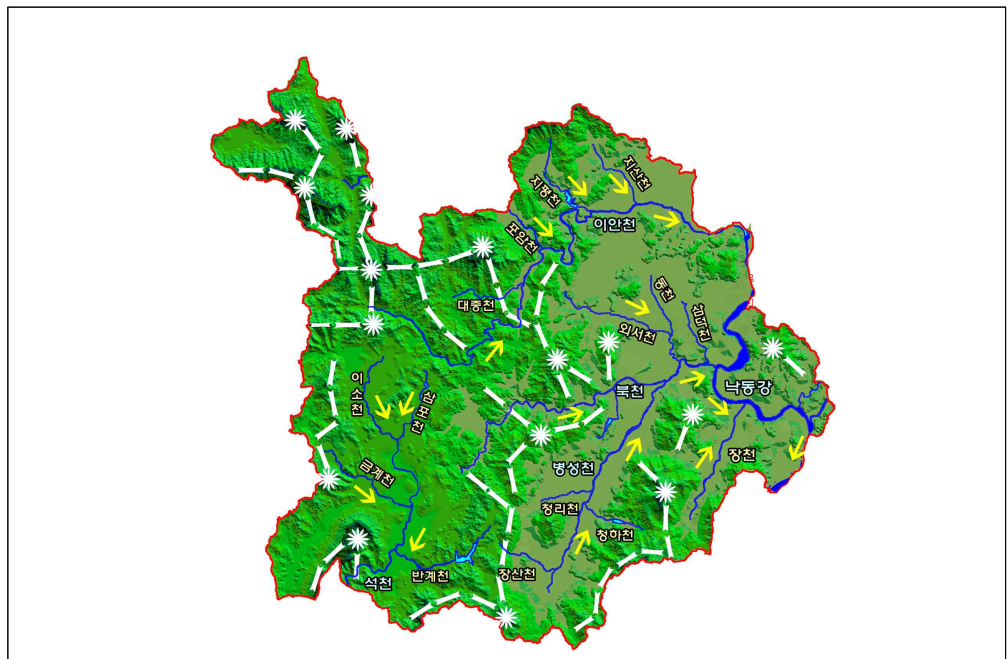
- 소백산맥줄기의 천황봉(1,057m), 문장대(1,054m)에서 백화산(933m), 국수봉(683m)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형성하고, 갑장산(806.7m), 노음산(725m) 등이 동측산맥을 형성
- 소백산맥 줄기를 서측경계로 하는 서고동저형의 지형을 형성하여 내륙적 도시특성을 보이며 산맥 및 수계에 의한 타도시와 경계를 형성
- 법정하천은 국가하천인 낙동강을 비롯하여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115개소가 분포

<표 3-34> 상주시 하천 현황 (단위 : km²)

구 분	하천수	총연장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139	537.00	907.00	652.00	255.00	71.89
국 가 하 천	1	30.00	22.00	22.00	-	100.00
지 방 하 천	23	228.00	332.00	256.00	76.00	77.11
기 타	115	279.00	553.00	374.00	179.00	67.63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2023)

<그림 3-8> 상주시 산악·수계현황도



Ⅲ. 현황 여건 분석

④ 기후

- 상주시는 경상북도 서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내륙의 기온특성인 대륙성 기후의 영향이 강하며, 위도에 비해 하절기 기온이 높고 연교차가 큰 지역임
- 내륙성 기후의 영향과 아울러 속리산 일대의 높은 산악지형으로 인해 우수의 흐름이 많은 지류들과 함께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상습침수지역의 발생과 아울러 강우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발생
- 과거 5년간(2017~2021년)의 연평균 기온은 13.2℃, 최고기온이 36.0℃, 최저기온이 -12.8℃로 나타나 기온의 연교차가 큰 지역임
- 강수량은 과거 5년간 연평균 1,233.5mm를 나타내고, 연평균 상대습도는 65.6%, 연평균 풍속이 1.5m/sec, 연평균 최대풍속은 10.1m/sec로 조사됨

<표 3-35> 상주시 기상 개황

구분	기온(℃)			강수량 (mm)	평균습도 (%)	바람(m/s)	
	평균	최고	최저			평균풍속	최대풍속
2017	13.3	36.6	-11.2	953.3	59.1	1.7	9.1
2018	13.1	38.5	-14.9	1,357.2	61.5	1.6	10.7
2019	13.4	35.2	-8.7	1,062.5	66.7	1.4	9.2
2020	13.1	35.0	-13.0	1,563.7	69.2	1.4	11.1
2021	13.2	34.7	-16.3	1,230.8	71.1	1.4	10.4
평균	13.2	36.0	-12.8	1,233.5	65.6	1.5	10.1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2) 인문환경

가. 산업 현황

Ⅲ. 현황 여건 분석

- 산업별 사업체 수는 총 12,883개로 총 39,437명이 종사하고 있음
-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주를 이루는 소비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표 3-36> 상주시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총괄

구 분	사업체		종사자	
	개소	구성비(%)	인	구성비(%)
계	12,883	100.0	39,437	100.0
농업, 임업, 어업	9	0.07	382	1.0
광업	15	0.1	54	0.1
제조업	1,155	9.0	5,351	13.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505	11.7	1,620	4.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2	0.3	243	0.6
건설업	1,698	13.1	4,366	11.1
도매 및 소매업	2,524	19.6	4,931	12.5
운수업	1,176	9.1	1,908	4.8
숙박 및 음식점업	1,766	13.7	3,153	8.0
출판, 영상,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7	0.6	264	0.7
금융 및 보험업	108	0.8	885	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3	1.4	408	1.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6	1.4	920	2.3
사업서비스업	161	1.3	495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66	0.5	2,504	6.4
교육 서비스업	407	3.2	2,979	7.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9	2.7	6,510	16.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11	1.6	738	1.9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62	9.0	1,726	4.4
가사서비스업	-	-	-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	-	-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Ⅲ. 현황 여건 분석

나. 주택 현황

- 「2021년 상주시의 총 주택수는 55,694호이며, 그 중 단독주택이 41,486호로 전체의 74.5%를 차지하며, 아파트가 12,457호로 22.4%를 차지하고 있음
- 주택보급률은 126.3%로서 지난 5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표 3-37> 상주시 주택 현황

구 분	가구수	종류별 주택수					보급률 (%)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17	42,364	54,226	41,339	11,150	624	1,113	128.0
2017	42,788	54,350	41,506	11,093	624	1,127	127.0
2019	43,216	54,440	41,528	11,161	624	1,127	126.0
2020	43,648	55,054	41,523	11,780	624	1,127	126.1
2021	44,084	55,694	41,486	12,457	624	1,127	126.3
연평균 증가율	1.1	0.8	0.4	2.2	0.0	0.7	-0.3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다. 문화재 현황

- 2021년 기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물 22점, 사적 및 명승 2점, 천연기념물 3점, 지방지정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24점, 기념물 17점, 민속자료 8점, 무형문화재 2점, 문화재자료 27점, 국가등록문화재 2점으로 총 108점의 문화재가 있음

<표 3-38> 상주시 문화재 지정 현황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 자료	중요 무형 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 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108	28	-	22	2	3	1	-	51	24	17	8	2	27	2

Ⅲ. 현황 여건 분석

3) 토지이용

가. 지목별 현황

- 상주시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총면적 1,254.67km² 중 임야가 66.0%인 827.78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농경지 271.65km², 하천 42.63km² 순으로 나타남

<표 3-39> 상주시 토지이용 현황

구 분		계	농경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상주시	면적(km ²)	1,254.67	271.65	827.78	22.48	2.35	1.81
	구성비(%)	100.0	21.7	66.0	1.8	0.2	0.1
구 분		도로	하천	구거	유지	기타	비고
상주시	면적(km ²)	29.79	42.63	27.44	6.62	22.12	-
	구성비(%)	2.4	3.4	2.2	0.5	1.7	-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나. 용도지역 현황

- 상주시의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지역이 50.64km²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이 369.74km²로 29.5%, 농림지역이 781.26km²로 62.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3.18km²로 4.2%가 지정되어 있음

<표 3-40> 상주시 용도지역 현황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km ²)	1,254.81	50.64	369.74	781.26	53.18
구성비(%)	100.0	4.0	29.5	62.3	4.2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4) 인구

가. 인구변화 추이

Ⅲ. 현황 여건 분석

- 상주시의 2021년 기준 인구는 95,566인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0.8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당 인구수는 2.0인으로 연평균 2.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외국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1.0%인 926인으로 연평균 1.22%의 증가율을 보임
-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인해 가구당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수의 증가율은 0.91%로 나타남
- 한편, 다문화 가구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표 3-41> 상주시 인구변화 추이

구 분	세 대	인 구			세대당 인구	65세이상 고령자	인구 밀도	다문화 가구
		계	한국인	외국인				
2012	45,174	104,992	104,182	810	2.3	25,903	84	
2013	45,413	104,170	103,346	824	2.3	26,429	83	
2014	45,845	103,798	102,892	905	2.3	27,105	83	
2015	46,313	103,267	102,374	893	2.2	27,563	82	
2016	46,750	102,701	101,799	902	2.2	27,769	82	
2017	47,048	101,860	100,947	913	2.2	28,535	81	
2018	47,527	101,237	100,297	940	2.1	29,100	81	
2019	48,796	101,678	100,688	990	2.1	29,822	81	777
2020	48,856	98,138	97,228	910	2.0	30,472	78	790
2021	48,965	95,566	94,640	926	2.0	31,130	76	810
연평균 증가율	0.91	-0.80	-0.82	1.22	-1.54	2.12	-0.82	2.1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나. 인구분포

- 시청 소재지인 동지역 인구수는 23,650세대 49,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2.1%가 거주하고 있음
- 읍면별로는 함창읍이 6,354명, 낙동면이 3,933명, 공성면이 3,905명 순으로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 인구밀도는 함창읍이 146.5인/ha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2> 상주시 읍면별 인구

구 분	세 대	인 구			세대당 인구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인/ha)
		계	한국인	외국인			
계	48,965	95,566	94,640	926	2.0	31,130	76.2
함창읍	3,392	6,354	6,299	55	1.9	2,393	146.5
사벌면	785	1,381	1,357	24	1.8	1,762	24.1
중동면	2,072	3,798	3,791	7	1.8	685	73.5
낙동면	2,219	3,933	3,911	22	1.8	1,841	43.1
청리면	1,409	2,563	2,537	26	1.8	1,178	64.7
공성면	2,141	3,905	3,847	58	1.8	1,829	43.8
외남면	880	1,620	1,610	10	1.8	744	48.8
내서면	1,062	1,895	1,878	17	1.8	835	23.5
모동면	1,328	2,542	2,498	44	1.9	967	36.0
모서면	1,385	2,461	2,418	43	1.8	1,012	29.0
화동면	1,071	1,940	1,831	109	1.8	802	34.6
화서면	1,489	2,799	2,751	48	1.9	1,078	47.0
화북면	874	1,520	1,515	5	1.7	614	15.3
외서면	1,475	2,651	2,624	27	1.8	1,129	30.1
은척면	893	1,514	1,495	19	1.7	811	28.1
공검면	1,200	2,111	2,103	8	1.8	1,088	53.4
이안면	1,154	1,987	1,972	15	1.7	993	37.9
화남면	486	793	782	11	1.6	343	14.6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다. 연령별 및 성별 인구

- 성별 인구는 49.0 : 51.0 으로써 여성 인구가 2%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14세 이하의 유년인구는 8,373인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이며,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 경제활동 가능 인구인 15~64세의 인구는 55,428인으로 전체 구성비에서 58.0%를 차지하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노령인구는 31,765인으로 전체 구성비에서 33.2%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3> 상주시 연령 및 성별 인구

연령별 및 성별		2016		2018		2021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총계	계	102,701	100.0	101,237	100.0	95,566	100.0
	남	50,221	48.9	49,472	48.9	46,869	49.0
	여	52,480	51.1	51,765	51.1	48,697	51.0
0~14세	계	9,937	9.7	9,299	9.2	8,373	8.8
	남	5,245	5.1	4,862	4.8	4,363	4.6
	여	4,692	4.6	4,437	4.4	4,010	4.2
15~64세	계	64,093	62.4	62,838	62.1	55,428	58.0
	남	33,703	32.8	33,101	32.7	29,574	30.9
	여	30,390	29.6	29,737	29.4	25,854	27.1
65세 이상	계	27,769	27.0	29,100	28.7	31,765	33.2
	남	10,876	10.6	11,509	11.4	12,932	13.5
	여	16,893	16.4	17,591	17.4	18,833	19.7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5) 교통시설

가. 도로

- 경상북도의 서북부 내륙에 위치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서측으로 소백산맥을 경계로 충북 괴산, 보은, 옥천군, 남측으로 김천시와 구미시, 충북 영동군, 동북측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문경시와 예천군에 접해 있는 경상북도 북부교통의 요충지임

Ⅲ. 현황 여건 분석

- 광역교통체계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청주~상주 고속도로, 상주~영덕 고속도로,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광역교통체계를 형성
- 국도는 4개 노선으로 국도 3, 25, 37, 59호선이 있으며, 지방도 4개 노선 901, 912, 916, 99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3개 노선 32, 49 68호선이 도시내 및 도시간 연결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도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상주시 전체의 도로연장은 835,370m, 포장률은 90.7%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도로유형별 포장률은 일반국도 100.0%, 지방도 97.2%, 군도 82.7%임

<표 3-44> 상주시 도로 현황 추이

(단위 : m, m² %)

연별	합 계					고속 국도	일반국도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2017	836,070	750,808	89.8	22,825	62,437	82,170	113,990	113,990	100.0	-	-
2018	835,370	751,651	90.0	21,465	62,254	82,170	113,290	113,290	100.0	-	-
2019	835,370	751,651	90.0	21,465	62,254	82,170	113,290	113,290	100.0	-	-
2020	835,370	757,367	90.7	20,585	57,418	82,170	113,290	113,290	100.0	-	-
2021	835,370	757,367	90.7	20,585	57,418	82,170	113,290	113,290	100.0	-	-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연별	지 방 도					군 도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연장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2017	225,064	218,754	97.2	5,010	1,300	414,846	335,894	81.0	17,815	61,137
2018	225,064	218,754	97.2	5,010	1,300	414,846	337,437	81.3	16,455	60,954
2019	225,064	218,754	97.2	5,010	1,300	414,846	337,437	81.3	16,455	60,954
2020	225,064	218,754	97.2	5,010	1,300	414,846	343,153	82.7	15,575	56,118
2021	225,064	218,754	97.2	5,010	1,300	414,846	343,153	82.7	15,575	56,118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Ⅲ. 현황 여건 분석

나. 철도

- 최근 5년간 철도수송실적을 살펴보면 여객은 2021년 기준 34,823명으로 2017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화물도착톤수는 2021년 기준 505톤으로 매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45> 상주시 철도수송 현황

(단위 : 명, 톤, 천원)

연 별	여 객			화 물		
	승차인원	강차인원	여객수입	발생톤수	도착톤수	화물수입
2017	100,852	93,368	710,679	-	737	-
2018	98,271	92,261	680,937	-	450	-
2019	69,159	64,431	337,620	-	-	-
2020	46,552	44,171	190,603	-	700	-
2021	34,823	33,445	113,446	-	505	-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라. 자동차

- 상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1년 기준 55,433대이며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35,296대, 승합차 2,070대, 화물차 17,757대, 특수차 310대임

<표 3-46> 상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명, 톤, 천원)

연 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자동차
2017	51,986	32,557	2,107	17,091	231	16,409
2018	53,358	33,635	2,088	17,385	250	16,300
2019	54,625	34,629	2,095	17,643	258	16,162
2020	54,957	34,835	2,085	17,756	281	15,961
2021	55,433	35,296	2,070	17,757	310	15,934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Ⅲ. 현황 여건 분석

6) 공급시설

가. 상하수도

- 2021년 상주시의 총인구 96,492명 중 급수인구는 76,448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79%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1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36,500m³, 1일 1인당 급수량은 430ℓ 임

<표 3-47> 상주시 상수도 보급 현황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m ³ /일)	급수량 (m ³ /일)	1일1인당 급수량(ℓ)	급수전수
2017	101,860	73,861	73	36,500	32,431	439	23,681
2018	101,237	75,998	75	36,500	34,992	460	24,562
2019	100,688	75,090	75	36,500	32,881	438	24,958
2020	98,890	76,138	77	36,500	32,449	426	25,371
2021	96,492	76,448	79	36,500	32,867	430	26,900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 상주시의 하수 처리 대상 인구는 75,047명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71.7%로 보급률이 낮은 편이고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표 3-48> 상주시 하수도 보급 현황

구분	총인구(명)	비처리인구 (명)	처리대상인구 (명)	하수종말처리인구 (명)	하수도보급률 (%)
2017	101,860	27,879	73,981	68,259	72.6
2018	101,237	26,807	72,366	74,330	71.5
2019	101,678	27,754	73,924	73,924	72.7
2020	110,859	33,487	77,372	77,373	69.8
2021	97,703	22,656	75,047	70,011	71.7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Ⅲ. 현황 여건 분석

나. 전기

- 상주시의 소비전력량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제조업 모두 전력사용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용도별 전력사용량은 2021년 기준으로 산업용 40.1%, 서비스업 37.4%, 가정용 16.1%를 차지하고 있음

<표 3-49> 상주시 용도별 전력 사용량

(단위 : MWh, %)

연 별	합 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2017	709,747	100	114,838	16.2	47,284	6.7	292,610	41.2
2018	758,930	100	119,841	15.7	48,828	6.4	303,897	40.0
2019	743,027	100	117,730	15.8	45,529	6.1	289,063	38.9
2020	743,612	100	122,585	16.5	46,422	6.2	284,408	38.2
2021	777,832	100	124,789	16.1	49,554	6.4	289,048	37.4

연 별	산업용					
	농림수산업		광 업		제조업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2017	143,457	20.2	1,406	0.20	110,151	15.5
2018	170,746	22.4	2,033	0.20	113,584	14.9
2019	170,547	23.0	2,363	0.32	117,796	15.9
2020	165,476	22.3	3,794	0.51	120,927	16.3
2021	182,698	23.6	3,850	0.50	123,893	16.0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다. 도시가스

- 상주시의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이용량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50> 상주시 도시가스 이용 현황

(단위 : 1000m³)

연 별	합계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2017	1,429	1,039	27	14	349
2018	11,188	7,587	169	128	3,304
2019	11,809	7,649	214	163	3,784
2020	14,936	7,597	246	210	6,883
2021	16,529	9,396	269	197	6,667

<표 3-51> 상주시 도시가스 보급률

연 별	보급률(%)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	공급권역 총 가구수
2017	21.4	10,173	47,571
2018	21.2	9,996	47,170
2019	22.3	10,863	48,796
2020	23.1	11,252	48,666
2021	25.2	12,296	48,872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7) 공공시설

가. 교육시설

- 2022년 현재 상주시의 교육시설 현황은 유치원 35개,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10개, 대학 및 대학원 3개, 기타 학교 1개로 총 94개가 분포함

<표 3-52> 상주시 교육시설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급(과)수	보통교실수	학생수	교직원
계	94	660	934	13,733	1,553
유치원	35	73	43	1,007	122
초등학교	28	260	386	3,568	567
중학교	17	114	131	2,087	304
고등학교	10	139	333	2,683	361
대학/대학원	3	52	-	4,272	145
기타학교	1	22	41	116	54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Ⅲ. 현황 여건 분석

나. 사회복지시설

- 상주시의 사회복지시설은 2021년 현재 29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3-53> 상주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별	합계		아 동 복지시설		노 인 복지시설		장 애 인 복지시설		여 성 복지시설		정 신 보건시설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2017	23	747	2	67	18	616	2	58	1	6	-	-
2018	26	917	1	57	20	660	2	54	1	9	2	137
2019	26	929	1	66	19	664	3	54	1	8	2	137
2020	29	1,013	1	66	21	731	4	75	1	8	2	133
2021	29	1,035	1	61	21	745	4	93	1	9	2	127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다. 공원시설

- 2020년 상주시 공원현황은 자연공원인 국립공원 1개소(속리산 국립공원)와 도시공원 48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표 3-54> 상주시 공원시설 현황

구 분	자연공원	도시공원							
	국립공원	소계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개소	1	48	13	14	12	3	4	1	1
면적 (천㎡)	48,172.0	1,030.1	25.4	14.8	621.9	40.0	151.1	94.2	82.7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라. 문화·체육시설

- 2021년 기준 상주시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2개소, 박물관 1개소, 공공공연장 1개소, 영화관 1개소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시·군민회관 1개소, 문화원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등이 있음

Ⅲ. 현황 여건 분석

- 2021년 기준 공공체육시설로는 총 761개소로 육상경기장 2개소, 축구장 4개소, 야구장 1개소, 테니스장 3개소, 씨름장 1개소, 간이운동장 732개소, 체육관 5개소, 골프연습장 2개소, 수영장·국궁장·승마장·롤러스케이트장·사격장 각각 1개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2개소 등이 있으며, 전년 대비 간이운동장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3-55> 상주시 체육시설 현황

구 분	계	육상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 장	씨름장	간이 운동장	구기 체육관	투기 체육관
2020	569	2	2	1	2	1	548	2	1
2021	761	2	4	1	3	1	732	2	1
구 분	생활 체육관	수영장	국궁장	승마장	골프 연습장	전천후 게이트볼	롤러 스케이트	사격장	비고
2020	2	1	1	1	2	1	1	1	
2021	3	1	1	1	3	6	1	1	

출처 : 상주시 통계연보 (2023)

7) 관광자원

가. 관광권역

- 전국 7대 문화관광권(한강유역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 북부권, 영남남부권, 제주권) 중 영남북부권에 속하며, 경상북도의 3대 관광권 중에는 북부자원권(유교문화·자연관광지역)에 속하며, 북부자원권을 3개의 소관광권으로 구분하면 서부권에 속함
- 상주시의 관광권역은 낙동강권역, 백두대간권역, 이안천권역, 시내권역으로 구분
- 상주시는 경천대, 상주국제승마장, 상주박물관, 자전거박물관, 수상레저센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회상나루(객주촌) 관광지, 낙동강역사이야기촌, 나각산,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등의 문화관광지를 낙동강권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개발하고 있음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56> 상주시 권역별 관광명소

구 분	시 설 명
낙동강 권역	경천대, 밀리터리테마파크, 상주박물관, 자전거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 상주보 오토캠핑장,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상주보 물놀이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천섬, 회상나루 관광지, 학 전망대, 나각산,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백두대간 권역	장각폭포, 맥문동솔숲, 문장대야영장, 문장대 오토캠핑장, 상주학생수련원, 속리산 국립공원, 용유계곡, 효자정재수기념관, 화령전승기념관, 백화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안천 권역	함창명주박물관, 잠사곤충사업장, 성주봉 자연휴양림, 성주봉 힐링센터, 성주봉 목재문화체험장, 성주봉 한방사우나, 공검지, 한국한복진흥원
시내 권역	임란북천전적지,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중덕지자연생태공원, 상주곶감공원, 남장사

나. 지정(법정) 관광지

- 상주시의 지정관광지는 화북면 운흥리에 위치한 문장대온천, 사벌면 삼덕리에 위치한 경천대, 중동면 회상리에 위치한 회상나루 3곳이 지정되어 있음
- 문장대 온천은 봄, 가을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온천휴양형 관광지로 1987년에 지정되었으며 속리산 국립공원의 북부에 위치하며, 부근에 문장대, 화양구곡, 선유구곡 등의 명소가 있으며 수안보온천, 월악산국립공원등과도 가까워 청주, 괴산, 상주 등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서울, 대구, 대전 지방의 1일 관광지로도 가능함
- 경천대는 수변휴양형 관광지로 1987년에 지정되었으며 낙동강 물길 중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깎아지른 기암절벽과 울창한 송림으로 유명함
- 주변에 임진왜란 때 명장 정기룡장군의 말먹이통, 우담 채득기 선생이 학문을 닦던 무우정 등이 남아 있으며, 주변 일대에 산책로가 잘 다듬어져 있고 전망대, 어린이놀이시설, 야영장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관광지로 유명함
- 회상나루는 상주시 도남동(경천대 남쪽)에서 중동면 회상리 횃골로 건너가는 나루로 주민들은 횃골나루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Ⅲ. 현황 여건 분석

상산지(청대본)에 회곡점(淮谷店) 앞이라 기록되어 있음. 회상
나루 관광지 내 한옥숙박시설 객주촌이 운영되고 있음

<그림 3-9> 상주시 지정 관광지



문장대온천

경천대

회상나루 객주촌

다. 자연공원 및 생태관광자원

- 상주시의 자연공원 중 유일한 국립공원인 속리산 국립공원은 총 274,541km²의 면적에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봉인 천황봉은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에, 문장대는 화북면 장암리에 자리잡고 있음
- 그 외 생태자원으로는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갑장산, 노음산 등의 산악관광자원 등이 있음

<표 3-57> 상주시 자연공원 및 생태관광자원 현황

구 분	내 용
속리산 국립공원	천황봉, 문장대, 희귀동식물의 보고
성주봉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야영장, 숲속의 집, 암벽등반코스,산행코스 등
갑장산	806m, 각종자생식물, 갑장사, 용흥사, 휴게시설(주차장,식당등)
노음산	725.4m, 남장사(전 장백사)
백화산	933m, 한성봉, 주행봉, 봉화터, 반야사, 편백숲, 금돌성
장각폭포	6m, 금란정, 향북정
산성	견훤산성(화북면용유리), 자산산성(만산동자산정상부), 남산고성(공검면역곡리), 금돌성(모동면수봉리)

출처 : 상주시, 「상주시종합계획」2020

Ⅲ. 현황 여건 분석

라. 방문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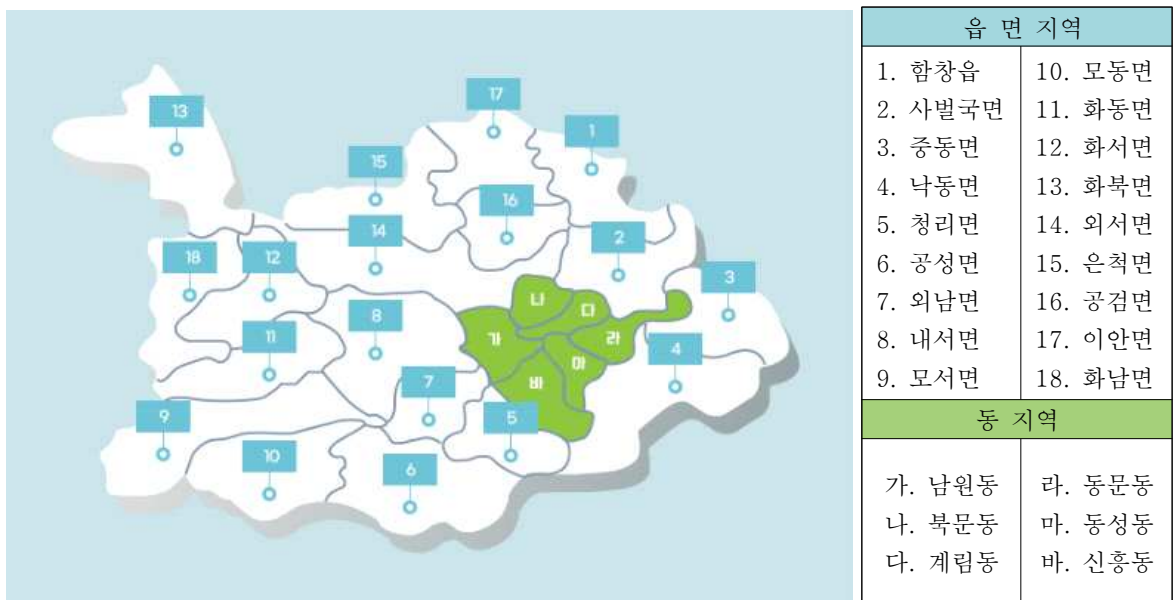
- 상주시의 2021년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7개소 기준으로 유료관광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박물관, 성주봉자연휴양림, 낙동승곡마을)는 259,366명, 무료관광지(국제승마장, 속리산문장대)는 63,645명으로 나타났음
- 연중 방문객 수는 유료관광지, 무료관광지 모두 10월이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달은 모두 1월로 나타났음
- 2021년 기준 지정 관광지의 방문객은 411,732명으로 경천대 279,194명, 회상나루 132,538명으로 자연 휴양 관광지인 경천대의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4. 상주시 경계지역 현황

1) 상주시 행정구역 및 경계지역

- 상주시의 행정구역은 18개 읍·면 지역, 6개 동 지역, 515개 통·리, 2,19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주시의 경상북도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화동, 화남, 화북, 모서, 모동, 공성면으로 충청북도 괴산·보은·옥천·영동군과 김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

<그림 3-10> 상주시의 행정구역



출처 : 상주시청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58> 상주시 경계지역과 인접지역 현황

상주시 관할 법정리		경상북도 경계지역 타 시도	
화북면	용유리, 장암리, 상오리, 입석리, 중벌리, 윤희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면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남면	동관리, 평은리, 임곡리, 중눌리, 소곡리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화동면	반곡리, 보미리, 선교리, 신촌리, 양지리, 어산리, 이소리, 판교리, 평산리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영동군 황간면
모서면	가막리, 대포리, 도안리, 득수리, 백학리, 삼포리, 석산리, 소정리, 정산리, 지산리, 호음리, 화현리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황간면 옥천군 청산면
모동면	금천리, 덕곡리, 반계리, 상판리, 수봉리, 신천리, 신희리, 용호리, 이동리, 정양리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추풍령면
공성면	거창리, 금계리, 도곡리, 무곡리, 봉산리, 산현리, 신곡리, 영오리, 오광리, 옥산리, 용신리, 용안리, 우하리, 이화리, 인창리, 장동리, 초오리, 평천리, 효곡리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감문면 구미시 무을면

2)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및 기관 현황 (2024년 기준)

■ 화북면

- 면적 : 99.40km²(전 3.45, 답 3.27, 과수원 0.02, 대지 0.7, 임야 88.7, 기타 3.27), 시 전체의 8%
- 인구 : 859세대/1,450명(남 743, 여 707)
- 행정구역 : 6개 법정리, 12개 행정리, 52개 반, 35개 자연부락
- 주요기관
 - 행정기관 : 면사무소, 서부출장소, 파출소, 소방대기소, 우체국
 - 교육기관 : 7개소(유치원2 초등1 분교2 중학교1 학생야영장1)
 - 유관기관 : 중화농협 지점, 속리산국립공원 화북분소
 - 의료기관 : 화북보건지소, 입석보건진료소, 용화보건진료소

Ⅲ. 현황 여건 분석

- 문화재 : 견훤산성, 상오리7층석탑
- 특산물 : 오미자, 고추, 콩, 포도, 블루베리, 아로니아, 약초, 송이버섯 등

■ 화남면

- 면적 : 54.40km²(농경지 3.0km², 임야 47.3km², 기타 4.1km²)
- 인구 : 489세대/780명(남 388, 여 392)
- 행정구역 : 5개 법정리, 9개 행정리, 35개 반, 27개 자연부락
- 주요기관
 - 주요기관 : 면사무소, 화남면 보건지소
- 특산물 : 고추, 포도, 담배, 인삼, 더덕 등 전작 중심 재배

■ 화동면

- 면적 : 56.15km²(경지 13.6km², 임야 40km², 기타 2.6km²)
- 인구 : 1,077세대/1,884명
- 행정구역 : 9개 법정리, 16개 행정리, 58개 반, 48개 자연부락
- 주요기관
 - 행정기관 :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 유관기관 : 서상주농협 지점, 한전 분소
 - 교육기관 : 3개소(유치원1, 초등학교1, 중학교1)
 - 의료기관 : 화동보건지소, 양지보건진료소
- 주요생산품 : 삼우콘크리트 흙관, 백석화학 활성탄소, 동명주물 건축자재, 세계제과 호박엿, 한울영농 과일주스 등

■ 모서면

- 면적 : 84.96km²
- 인구 : 1,397세대/2,340명

Ⅲ. 현황 여건 분석

- 행정구역 : 12개 법정리, 24개 행정리, 63개 반, 49개 자연부락
- 주요기관
 - 행정기관 : 면사무소, 우체국
 - 유관기관 : 모서농협, 새마을금고
 - 교육기관 : 3개소(유치원1, 초등1, 중학교1)
 - 의료기관 : 모서보건지소, 정산보건진료소
- 특산물 : 포도 등 과수 재배

■ 모동면

- 면적 : 70.53km²(농경지 12.13, 임야 52.02, 기타 6.35)
- 인구 : 1,413세대/2,560명
- 행정구역 : 10개 법정리, 19개 행정리, 66개 반, 41개 자연부락
- 주요기관
 - 행정기관 :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 교육기관 : 6개소(유치원2, 초등2, 중학교1, 고등학교1)
 - 유관기관 : 서상주농협, 예비군 면대, 소방대기소
 - 의료기관 : 모동보건지소, 신흥보건진료소
- 특산물 : 포도 등 과수 재배

■ 공성면

- 면적 : 89.17km²(상주시의 7.1%)
- 인구 : 2,159세대/3,889명
- 행정구역 : 19개 법정리, 38개 행정리, 127개 반, 74개 자연부락
- 주요기관
 - 행정기관 :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Ⅲ. 현황 여건 분석

- 교육기관 : 4개소(유치원1, 초등1, 중1, 과학교1)
- 유관기관 : 공성농협, 대구경북농금농협, 공성면회관
- 의료기관 : 공성보건지소, 봉산보건진료소, 용안보건진료소
- 산업단지 : 평천 농공단지
- 주요경제 : 농업(벼, 사과, 배, 포도 등), 축산 및 상업

나. 지역 특성 및 생활권

■ 화북면

- 화북면은 상주시의 다른 행정구역과 달리 북쪽으로 빠져나온 모습
을 하고 있으며 면 소재지는 용유리임
- 서쪽과 북쪽으로 충북 보은군·괴산군과 도계를 이루고, 동으로
는 문경시 농암면, 남으로는 화남면과 접하며,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산간 지역으로서 생활권이 상주와 청주, 보은, 문경 농
암으로 분산되고 있음
- 증별리, 운흥리, 입석리의 수계는 한강수계에 속하고 생활권과
문화권도 청주, 괴산, 보은에 가까우며 특히, 자동차 이동 시 용
화지역(증별리, 운흥리)은 상주보다 청주시에 가까움
- 속리산의 절반 정도가 화북에 속하며 화북 청소년수련장이 위치

■ 화남면

- 화남면은 화북면에서 분리된 곳으로 면 소재지는 평온리이며 관
할구역이 남북으로 긴 형태임
- 상주시 서북부에 위치한 산간 지역으로 충북 보은군과 도계를
이루는 관문으로서 남북으로 백두대간이 관통하고 임야가 86%
를 차지하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청정지역으로 유명
- 상주시 읍면동 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면적 대비 인구밀도
가 전국적으로 적은 지역임
- 임곡리, 중눌리는 상주보다 보은 생활권에 가까우며, 동관리, 소

Ⅲ. 현황 여건 분석

곡리도 화남면 소재지보다는 화서면 소재지인 화령과 가까움

■ 화동면

- 면 소재지는 이소리이며, 49번 지방도가 남북으로 화서면과 모서·모동면, 영동군 황간면으로 연결함
- 백두대간의 남한 구간 중심지로서 낙동강과 금강 지류가 분수를 이루는 곳으로 면 소재지가 해발 280m에 위치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중산간 분지에 위치함

■ 모서면

- 면 소재지는 삼포리이며, 해발 270m의 산간지대로서 임야 76%를 차지하고 금강 수계 지역임
- 901번 지방도 연선 지역으로 동쪽은 내서면과 공성면, 서쪽은 충북 영동군 용산면과 옥천군 청산면, 남쪽은 모동면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북쪽은 화동면과 인접함

■ 모동면

- 면 소재지는 용호리이며, 49번 지방도가 남북으로 모서면과 영동군 황간면 방면으로 연결되고 금강 수계 지역임
- 서북쪽으로 백화산(해발933m)과 남으로 지장산(해발772m), 동으로 백학산(해발618m)에 둘러싸여 형성된 해발 200~400m 산간분지로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추풍령면과 공성면, 모서면과 인접함

■ 공성면

- 면 소재지는 옥산리이며 시내와 김천 방면으로 3번 국도와 경북선 철도(옥산역)가 지나가 교통이 편리함
- 상주시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동쪽은 구미시 무을면, 남쪽은 김

Ⅲ. 현황 여건 분석

천시 감문면과 어모면, 서쪽은 모동면과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북쪽은 외남면과 청리면에 인접함

- 표고 91m의 평야 지대로 내륙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며 서부지역인 신곡리, 우하리, 효곡리 전역과 신봉리 일부가 금강 수계에 속함
- 상주와 김천의 중간에 위치하여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옥산을 위주로 상가가 밀집한 소도시 지역을 이루고 있어 경제 중심지를 이룸

3) 생활SOC 현황

가. 주요시설 이동 소요 시간

- 상주시의 교육시설 이동 소요 시간은 일평균(06~20시) 시간대에 대중교통 및 도보 이동 시 초등학교는 40분, 중·고등학교도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주시의 공공의료시설 이동 소요 시간은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 시 일평균 33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의원 은 일평균 61분, 종합병원은 일평균 7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 시 버스 터미널까지 일평균 67분, 철도역까지는 일평균 7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나. 분야별 생활SOC 현황

① 보육시설

- 상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1개소가 있으며, 이 중 동 지역에 7개소, 화서면 1개소, 공검면 1개소, 화북면 1개소, 함창읍 1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1개소가 있으며 동 지역에 위치함

Ⅲ. 현황 여건 분석

- 상주시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총 2개소가 있으며 동 지역에 위치함

② 문화·체육시설

- 상주시의 공공도서관은 총 3개소가 있으며, 동 지역에 2개소, 화서면에 1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작은도서관은 총 13개소가 있으며, 동 지역 4개소, 함창읍 3개소, 사벌국면·이안면·공검면·외서면·모서면·모동면에 각 1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생활문화센터는 총 1개소가 있으며, 2024년 4월 개관한 상주복합문화센터 3층에 위치함
- 상주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총 761개소가 있으며, 이 중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이 732개를 차지함
 - 개별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낙동면, 가장 적은 지역은 중동면으로 나타남
 -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종목별 공공체육시설은 사벌국면에 테니스장 1개소·게이트볼장 3개소·축구장 1개소·승마장 1개소, 낙동면에 야구장 1개소, 청리면에 축구장 1개소, 화북면·낙동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음
- 상주시의 생활체육공원은 총 1개소가 있으며, 동 지역에 위치함
- 상주시의 국민체육센터는 총 2개소가 있으며 동 지역의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에 위치하며, 동 지역에 제2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8월 개관 예정임
- 상주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2개소가 있으며, 동 지역에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화북면에 경상북도 상주학생수련원 1개소가 있음

③ 복지시설

- 상주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21개소로 동 지역 4개소, 낙

Ⅲ. 현황 여건 분석

- 동면 6개소, 사벌국면·내서면 3개소, 모서면 2개소, 화남면·청리면·공검면에 1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8개소로 동 지역에 5개소, 함창읍·화동면·낙동면에 1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1개소로 동 지역에 위치함
- 상주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 1개소로 동 지역에 위치함

④ 의료시설

- 상주시의 병원 의료기관은 총 100개소로 대부분 동 지역에 위치하며, 함창읍에 의원 3개소·치과의원 2개소·한의원 2개소, 사벌국면에 부속의원 1개소, 낙동면에 요양병원 1개소, 공성면에 의원 1개소·한의원 1개소, 내서면에 특수병원 1개소, 화서면·외서면·은척면에 한의원 1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보건 의료기관은 보건소 1개소가 동 지역에 있으며, 보건지소는 총 18개소로 모든 읍·면 지역에 각 1개소씩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총 25개로 사벌국면 3개소, 낙동면·공성면·외남면·내서면·화북면에 각 2개소, 그 외 지역에는 1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동 지역에 1개소가 있음

⑤ 교통시설

- 상주시의 주차장은 3,176개소·42,646면으로 동 지역에 66%인 2,102개소·29,775면, 읍·면 지역에 34%인 1,074개소·12,871면이 있으며, 이 중 경계지역에는 9%인 화북면 70개소·426면, 화남면 8개소·34면, 화동면 27개소·145면, 모서면 57개소·2,858면, 모동면 32개소·79면, 공성면 92개소·508면이 있음

⑥ 공원시설

- 상주시의 어린이공원은 총 13개소로 동 지역에 6개소, 함창읍

Ⅲ. 현황 여건 분석

1개소, 청리면 1개소, 화서면 3개소, 은척면 2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근린공원은 총 13개소로 동 지역에 10개소, 함창읍 1개소, 공성면 2개소가 있음

다. 요약 및 분석

- 상주시의 경계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가구당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고 다문화 가구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경계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공성면, 가장 적은 지역은 화남면으로 상주시 읍·면·동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음
- 상주시의 경상북도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주시의 동쪽 지역 6개 면으로 공성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산간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포도 등 과수 재배를 주로 함
- 경상북도의 관문지역으로 도 경계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과 경상북도 문경시·김천시와 생활권을 공유함
 - 화북면 : 상주와 충청북도 청주·보은, 경상북도 문경 생활권
 - 화남면 : 상주와 충청북도 보은 생활권
 - 화동면 : 상주와 충청북도 영동 생활권
 - 모서면 : 상주와 충청북도 영동·옥천 생활권
 - 모동면 : 상주와 충청북도 영동 생활권
 - 공성면 : 상주와 경상북도 김천 생활권
- 상주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1개소로 경상북도 평균(9.5개소)보다 다소 높고 동 지역에 7개소, 읍·면 지역에 4개소가 있으며, 이 중 경계지역인 화북면에 1개소가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는 2개소로 경상북도 평균(1.4개소)보다 높으나 다함께돌봄센터는 1개소로 경상북도 평균(3개소)보다 적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도 가장 많아 개선이 필요하며 모두 동 지역에 있음

Ⅲ. 현황 여건 분석

- 상주시의 공공도서관은 3개소로 경상북도 평균(3.2개소)과 비슷하고 동 지역에 2개소, 화서면에 1개소가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13개소로 경상북도 평균(13.8개소)과 비슷하고 동 지역에 4개소, 읍·면 지역에 9개소가 있으며, 이 중 경계지역에는 모동면과 모서면에 각 1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은 각 1개소로 모두 동 지역에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총 732개소로 가장 많은 지역은 낙동면, 가장 적은 지역은 중동면임
- 상주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1개소, 수용인원 843명으로 경상북도 평균(19개소, 705명)보다 다소 높고 동 지역에 4개소, 읍·면 지역에 17개소가 있으며, 이 중 경계지역에는 모서면 2개소, 화남면에 1개소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8개소로 경상북도 평균(12개소)보다 낮으나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는 994명으로 경상북도 평균(1,029명)보다 적어 공급수준은 다소 높고 동 지역에 5개소, 읍·면 지역에 3개소가 있으며, 이 중 경계지역에는 화동면에 1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가족센터는 각 1개소로 모두 동 지역에 있음
- 상주시의 병원 의료기관은 46개소, 병상은 509개로 경상북도 평균(61.3개소, 659병상)보다 낮고 동 지역에 41개소, 함창읍 3개소, 공성면 1개소, 화서면 1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보건 의료기관은 44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18, 보건진료소 25)로 경상북도 평균(23.5개소)보다 높고 기관당 서비스 인구수도 2,185명으로 경상북도 평균(5,104)보다 적어 평균 공급 수준보다 높은 편이나 전국적으로 읍·면 지역의 공공의료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 상주시의 보건소는 동 지역에 1개소, 보건지소는 각 읍·면에 1개소, 보건진료소는 각 읍·면에 1~3개소가 있음
- 상주시의 주차장은 42,607면으로 경상북도 평균(61,958면)보다

Ⅲ. 현황 여건 분석

는 적으나 기관당 서비스 면수는 2명으로 경상북도 평균과 같으며, 동 지역에 66%, 읍·면 지역에 34%가 있으며, 이 중 경계지역의 주차장이 9%를 차지함

- 기초생활 SOC 19개 항목(보육시설 3개, 문화·체육시설 6개, 복지시설 4개, 의료시설 3개, 교통시설 1개, 공원시설 2개)에 대한 시설 수요는 공공체육시설이 761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1개소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 조사된 상주시의 6개 분야 19개 항목의 생활SOC 시설은 총 3,363개소로 이 중 동 지역에 2,191개소가 편중되어 있으며, 읍·면 지역 중에서는 함창읍이 302개소로 가장 많으며 외남면이 12개소로 가장 적게 나타남

Ⅲ. 현황 여건 분석

<표 3-59> 상주시 생활SOC(6개분야 19개 항목) 읍·면별 분포 현황

구 분	계 (개소)	보육 (개소)	문화·체육 (개소)	복지 (개소)	의료 (개소)	주차장 (개소)	공원 (개소)	비 고
함창읍	302	1	3	1	5	290	2	-국립어린이집 1개소 -작은도서관 3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의원 3,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1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1
사벌국면	69		1	3	4	61		-작은도서관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
중동면	15				2	13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낙동면	88			7	3	78		-노인의료복지시설 6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청리면	93			1	2	89	1	-노인의료복지시설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근린공원 1
공성면	98				4	92	2	-의원 1,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2 -어린이공원 2
외남면	12				3	9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내서면	32			3	3	26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모동면	35		1		2	32		-작은도서관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모서면	62		1	2	2	57		-작은도서관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2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화동면	30			1	2	27		-지역아동센터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화서면	133	1	1		3	125	3	-국립어린이집 1개소 -공공도서관 1개소 -의원 1,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1 -근린공원 3
화북면	75	1	1		3	70		-국립어린이집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외서면	24		1		2	21		-작은도서관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은척면	48				2	44	2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근린공원 2
공검면	24	1	1	1	2	19		-국립어린이집 1개소 -작은도서관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이안면	16		1		2	13		-작은도서관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화남면	16			6	2	8		-노인의료복지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동 지역	2,191	10	10	11	42	2,102	16	-국립어린이집 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공공체육아나눔터 2개소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도서관 4개소 -생활문화센터 1개소 -국민체육센터 2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4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 -가족센터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중요한병원 2, 의원 39, 보건소 1 -근린공원 6, 어린이공원 10
합 계	3,363	14	21	36	90	3,176	26	

관련 여건 분석

1. 관련 계획 및 법규
2. 국내·외 선진 사례
3. 개발 여건 동향
4.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4

IV. 관련 여건 분석

1. 관련 계획 및 법규

1) 관련 계획 및 사업

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사업(2019)

-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적최저수준 개념을 적용하여 서비스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표 4-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사업의 내용

구 분	10대 과제
<p>① 여가·건강생활 인프라</p>	<p>1.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 생활형 국민체육센터(20개소→160개소), 작은도서관 건립지원(16개소→243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신규 50개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296개소→450개소) 및 주차장 조성(31개소→45개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18개소)</p> <p>2. 지역 관광 인프라 - 박물관 등 전시시설 내 VR체험존 설치(신규19개소), 어린이박물관(7개소), 어린이 과학관(4개소) 구축,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신규3개소), 문화재 안내판 일제 정비(신규 1,880개소), 국립공원 야영시설 확충(신축 카라반 41동, 야영장 2개소)</p>
<p>② 지역 활력 제고 인프라</p>	<p>3.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지역 확대(68개소→168개소), 주민편의 복합시설 조성 지원(7,000억원→8,000억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2개소)</p> <p>4.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어촌뉴딜300(신규70개소), 군단위 LPG배관망 공급(3개군→7개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9개→110개 도서)</p> <p>5. 지능형(스마트) 영농 -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2개소→4개소), 지능형(스마트) 축산 정보통신(ICT) 시범단지(신규 2개소), 지능형(스마트) 양식 협력단지(클러스터)(신규 1개소)</p> <p>6. 노후 산단 재생 및 지능형(스마트) 공장 - 노후산단 환경개선 펀드 확대(500억원→2,500억원),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지원(1,425개소→2,100개소), 노후공장 재정비 용자(신설 504억원)</p>
<p>③ 생활안전과 환경 인프라</p>	<p>7.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신규 1,200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기능 보강(108개소→270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39</p>

IV. 관련 여건 분석

	<p>개소→41개소)</p> <p>8. 생활안전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선(300억원→500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18,000개소→25,000개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신규 57개소) <p>9. 미세먼지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차단 숲(60ha), 도시바람길 숲(신규 10개소), 지하 역사 환기설비 교체(46대), 전기차(1,270기→1,325기), 수소차(10기→30기) 충전 인프라 확대 <p>10. 신재생 에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55,000호→94,000호), 국립대학 내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12개교→22개교)
--	---

나.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

- 2019년 4월,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발표

■ (여가활력)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 ①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4만 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 확대
- ②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
- ③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 (생애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 ④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 강화
- ⑤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시설을 확충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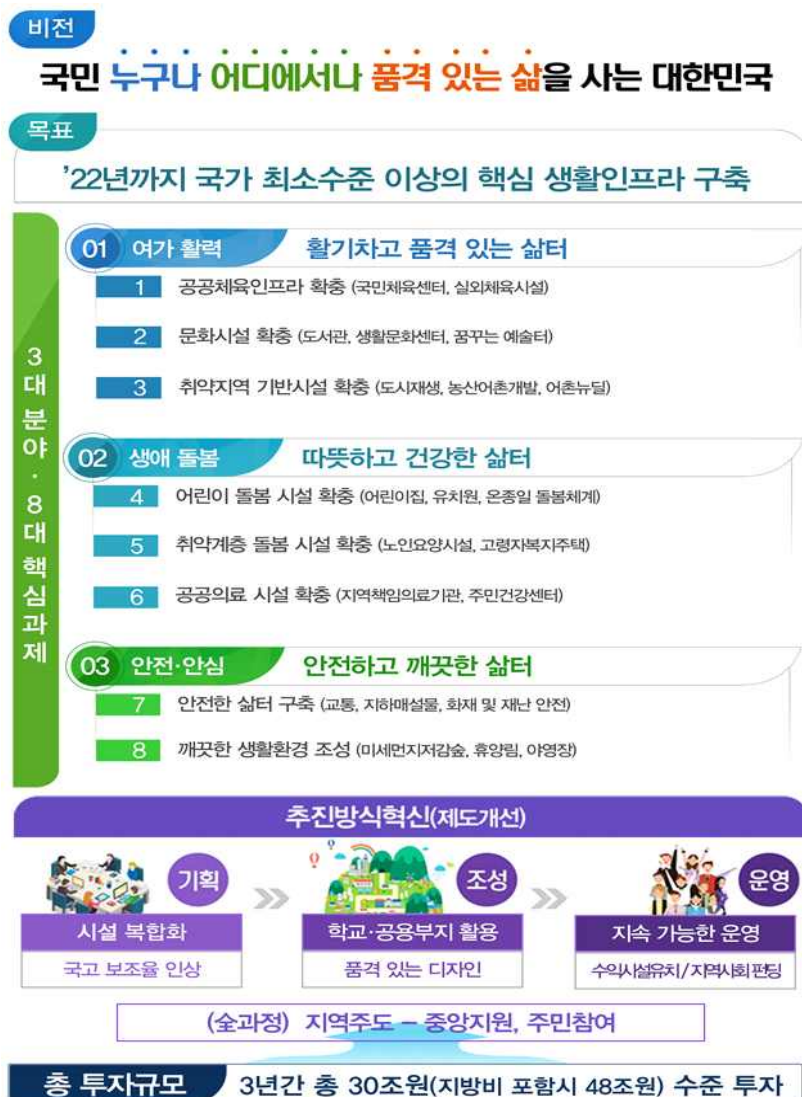
IV. 관련 여건 분석

- ⑥ 공공의료시설 확충: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

■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 ⑦ 안전한 삶터 구축: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도 추진
- ⑧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 야영장도 늘림

<그림 4-1>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비전 및 핵심과제



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2020~2022)

-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함.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도-중앙지원’ 원칙 하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다변화에 역점을 둠
-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복수의 생활SOC 시설을 한 곳에 건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SOC 복합화시설은 시설의 부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쉽고, 건설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설 내 기능과 프로그램 연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방식으로 건립하여 부지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상 시설로 체육과,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함
 - 생활SOC 10종 시설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도, 상향식, 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함
 - 2020년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7개 관계부처는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함
- 20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3년차를 맞아 추진체계와 성과를 체계화·강화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과 내실화에 주력하여 국민 체감성과를 제고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맞는 복합화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활SOC 관련 13종 대상시설

IV. 관련 여건 분석

(국고보조사업)을 선정

- 13종 대상시설 간 복합화, 13종 대상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간 추가·연계

<그림 4-2> 생활SOC 복합화사업 개념도



<표 4-2> 부처별 13종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

부처명	세부사업	시설명	회계/기금	사업추진 방식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작은도서관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생활문화센터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국민체육센터 건설지원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공모 선정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일반회계	공모 선정
	다함께돌봄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회계	공모 선정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립노인요양시설	일반회계	공모 선정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농어촌보건소	건강기금/농특회계	공모 선정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양평기금	공모 선정
	가족센터(복합)	가족센터	균특회계(지역지원)	부처 직접편성
국토교통부	주차환경 개선	주거지주차장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중소벤처 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 주차장	소진기금	공모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확산 지원	로컬푸드복합센터	일반회계	공모 선정

출처: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IV. 관련 여건 분석

라.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

<표 4-3>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 더 큰 희망, 더 큰 경북 ” - 더 큰 경북 :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통합신공항 조성, 10만 신도시 조기 달성 등을 통해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의미에게 ‘더 큰 희망’을 제시 - 더 큰 경북 : ‘먹고 살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게 해 달라”, “예전 처럼 활기찬 경상북도를 만들어 달라”는 경북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큰 경북’을 통해 경상북도를 세계로 도약시키자는 의지의 표현 • 슬로건 :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 - 2030년 새로운 통합 신공항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만 ‘갇힌 경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열린 경북을 추구하자는 의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경상북도종합계획의 비전을 “더 큰 희망, 더 큰 경북”으로 설정하고 2대 핵심 개념과 1대 슬로건을 중심으로 실천 전략 마련 • 더 큰 희망, 더 큰 경북을 통해 도민의 삶을 행복하고 가슴뛰게 만드는 일을 통해 모두 꿈꾸는 행복한 더 큰 경북을 실현
계획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종합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을 수용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발전 전략을 구체화 • 미래지향적 장기비전계획 : 2021년에서 2040년까지 향후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경상북도의 미래상을 담은 미래지향적 계획 • 시·군 단위 계획에 대한 지침계획 : 23개 시·군 단위 각종 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 대한 지침적 성격을 가지며 각 부문별 정책 수립의 방향성 제시
계획의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없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지역 : 경북 도민이 주인이 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감 도시 조성, 청년, 노인, 여성, 은퇴자, 노동자 등을 배려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경북 도민들이 정책의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 동참자로 참여 •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산업 선도지역 전략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계 기존 제조업 첨단화, 글로벌 기업 유치로 신산업 육성, 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한 융복합 산업화 선도 • 품격있는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역 : 관광자원 연계 2천만 관광 지역으로 조성, 경북의 다양한 전통문화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브랜드 도시 조성 • 세계로 통하는 교통물류망 거점지역, 통합신공항 연계 구미, 포항 등 국가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인접 지역과 연계를 통한 천만명 경제권 형성을 통해 경북 경쟁력 제고, 경북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삶터, 쉼터, 일터의 새로운 변화

IV. 관련 여건 분석

<그림 4-3> 2040 경상북도 미래 구상(안)



마.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년)

<표 4-4>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 경상북도 ” · 지방시대에 선도하는 획기적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소멸 극복을 달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유목민 시대를 넘어 지역 정주시대 구현, ·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체 확립 · 아이디어시대를 선도하는 과감한 교육개혁 · 제조업벨트에서 첨단산업벨트로 구조전환 · 케이-로컬(K-Local)로 주도하는 경북 특화발전 · 지역위기를 대비하는 선순환 환경 조성
균형발전 5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 5대 전략 : 자치분권, 교육개혁, 일자리창출, 특성화 발전, 균형발전 · 성과지표를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표 : 1인당 GRDP, 일자리수, 재정자주도, - 자율지표 : 5대 전략별 경북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선정
공간발전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를 선도할 국토 중남부권 및 동서남북벨트 중심 발전축 설정 · 남부북부동해안 3대 경제권과 2포트 시스템(통합신공항, 영일만항)

IV. 관련 여건 분석

<그림 4-4> 경상북도 지방시대 공간 발전 구상(안)



사.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1~' 24)

-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법’ 을 제정하고 15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림 4-5> 삶의 질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목표	생활 인프라 및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완화	농어촌 지역 내 격차 해소, 다변화되는 정책 수요 대응
대상	농어업인 중심	농어촌의 다양한 세대·계층 포용
범위	농식품부, 해수부 정책 중심	관련 소 부처 협업 추진체계 내실화
거버넌스	단위 사업별 관리 중앙정부 주도	통합적 지원을 위한 플랫폼 중앙과 지방, 민과 관의 협치

IV. 관련 여건 분석

<표 4-5>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추진전략	<p>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④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p>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④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p>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p>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④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추진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편, 사전협의 제도 도입 및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 제정을 통한 삶의 질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범부처 정책 조정 • 농촌협약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제도화 	

IV. 관련 여건 분석

2) 관련 법규

가. 경계지역 관련 자치법규

①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2023.10)

<표 4-6>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지원 조례의 내용

구 분	내 용	검토내용
제1조 (목적)	경상북도 경계지역 및 경상북도 내 시·군 경계지역 발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p>① 도지사는 경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지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방향 2. 경계지역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제5조에 따른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계지역 현황파악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계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2. 주민소득 창출사업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 4.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사업 5. 경계지역일 경우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의 연계협력 추진사업 6. 그 밖에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한다.</p>	
제5조 (경계지역별 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경계지역에서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으로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p>① 도지사는 경계지역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경계지역 지원 사업 실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행정체계 구축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경계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IV. 관련 여건 분석

②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2017. 9)

<표 4-7>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내용

구 분	내 용	검토내용
제1조 (목적)	전라남도 내 시·군 간 경계지역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간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전라남도의 책무)	<p>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지역에 대한 해결·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군은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인접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제4조 (민원신청)	<p>① 시·군 경계지역 주민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균형발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해당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p>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권고)	<p>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가 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도지사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지원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IV. 관련 여건 분석

③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2020. 4)

<표 4-8>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내용

구 분	내 용	검토내용
제1조 (목적)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시·군 간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지역에 관한 해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신청)	① 시·군 경계지역 주민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 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균형발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권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도지사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지원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IV. 관련 여건 분석

나. 경계지역 연계 및 협력사업 관련 법령

<표 4-9> 경계지역 연계 및 협력사업의 관련 법령 체계

구 분		내 용
기본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종합적 이용.개발 및 보전,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이 법에 의한 '국토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획에 우선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이 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우선함
지역개발	도시계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공의 안녕질서 보장, 공공복리 증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
	도시개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적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 절차, 방법을 규정
	토지수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사업용 토지의 협의 취득,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 기준과 방법 규정
개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 기여함
	산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 산림의 보호.육성, 국토의 보전, 임업의 생산력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이 목적
	농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의 보전.이용.소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국토환경보전을 도모함
	관광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연공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도시공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함
	기타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법, 환경영향평가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

출처 : 경상북도 경계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별 개발계획(2023)

IV. 관련 여건 분석

다.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 관련 법령

<표 4-10>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 관련 법령

시설	시설유형 및 범위	관련법
공공도서관	공립도서관(최소 263㎡이상)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99~263㎡ 규모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법, 도서관법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장애인형 포함)/	국민체육진흥법
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시설범위에 관한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주민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중심) 및 보건지소	지역보건법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공간	아동복지법
공립노인요양시설	급식, 요양 등을 제공하는 공공 노인입소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부모 대상 자녀 돌봄공동체 공간	아이돌봄지원법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의 가족센터 전환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주거지주차장	노후 저층주거지 등에 설치하는 공영 주차장(부설 외 추가설치)	주차장법
전통시장주차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연계 공영주차장(부설 외 추가설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로컬푸드복합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장된 형태(가공 및 전시기능 등 복합화)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법

출처 : 「도시재생형 생활SOC 사업화방안 연구」, 한국도시재생학회, 2020

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법률안
-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기능을 분산하여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

IV. 관련 여건 분석

<표 4-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구 분	내 용	검토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5년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력 담보
제22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신설
제67조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IV. 관련 여건 분석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함

<표 4-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내용

구 분	내 용	검토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 주도 인구 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수립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시·도기본계획, 시·군·구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특례
제14조 (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IV. 관련 여건 분석

2. 국·내외 선진 사례

1) 국내 선진 사례

가. 산외면 문화센터

<표 4-13> 밀양시 산외면 문화센터

구분	내용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30
시설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대지 9,741㎡, 연면적 563㎡(지상 2층) • 사업기간 : 2012~2018 • 총사업비 : 10억원 - 국비 7억원(농림부,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비9천만원, 시비2억천만원 - 외부시설 :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다목적광장, 주차장 27면 - 내부시설 : 대회의실, 음악동아리, 정보화방, 체력단련실 등 • 시설소유 : 밀양시, 운영주체 : 산외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프로그램 : 10~18개, 연평균이용자 : 280~380명(배후면 주민 비율 30%) • 서예교실, 수목화교실, 캘리그래피교실, 춤바댄스, 컴퓨터교실, 요가교실, 탁구교실, 축구동호회, 색소폰동호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이끄는 문화공동체 허브 역할 수행 -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임 -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이 있는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역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등 상호융합의 기회 마련 - 자체프로그램은 대부분 마을 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 - 저렴한 이용료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과의 화합 도모 - '1인 1동아리 갖기 운동' 진행과 함께 배후면 주민들도 함께 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모이는 농촌 문화거점 역할 수행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생활SOC 대표 사례로 운영관리도 주민자치회가 담당 • 배후마을 주민들까지 함께 포용한 농촌 지역거점형 문화시설



IV. 관련 여건 분석

나. 완주군 비비정마을

<표 4-14> 완주군 비비정마을

구 분	내 용
위 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길 26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13,183㎡ • 사업기간 : 2009~2013 • 총사업비 : 28억원(국비 14억원, 군비 14억원) • 시설소유 : 완주군 • 운영주체 : (사)비비정마을(위탁) • 농가레스토랑 비비정과 카페 비비낙안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골의 소박함과 세련된 문화예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마을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년전 과거길을 가던 선비들의 쉼터였던 '비비정(飛飛亭)'이라는 정자 이름에서 유래된 마을로 30가구의 빈촌이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1985년 가동이 중단되어 폐허화된 양수장과 정수탑이 있음 • 2009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시행, 2008년 완주군 '선택리지사업'을 통해 관계를 맺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3년간 마을에 상주하며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 • 5년의 사업 기간 동안 농가레스토랑, 카페 등 시설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통해 마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대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대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농가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전통 양념과 각종 식재료들은 모두 완주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며, 연평균 15만 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됨 - 카페 비비낙안 역시 옛 정수탑을 개조한 은색 전망대와 함께 마을 전경과 만경강의 낙조를 감상하는 지역 명소임 - 카페 주변에 있는 등록문화재 제211호로 지정된 완주 구 삼례양수장은 삼례와 익산 지역의 상수원을 목적으로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근대 유적으로 당시 치수사업의 상황과 건설기술을 보여주는 근대 유적임 • 2018년~2020년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농촌웨딩 공간조성사업'에 당선되어 경관 조성과 함께 웨딩컨설팅, 홍보마케팅, 특화메뉴 개발사업을 진행 • 안정기에 접어든 농가레스토랑과 웨딩사업으로 고령자 대부분이던 가난한 농촌마을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선도적 마을공동체로 거듭남 •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행정의 노력 및 주민역량을 기르기 위한 행정 지원(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문가인 시민단체(희망제작소)와의 협업, 마을공동체(마을주민 85%)의 노력 등이 함께 이루어낸 성공적 성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참여형 사회적 경제 생활SOC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 • 민·관 협치로 이루어낸 사업성과가 귀농·귀촌 세대 증가로 이어짐



IV. 관련 여건 분석

다. 고령군 대가야 문화누리

<표 4-15> 고령군 대가야 문화누리

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부지 35,126㎡ / 연면적 18,950.42㎡(지하 기계실 및 지상4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샤워실/탈의실, 주차장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638석, 소공연장 140석, 전시장, 분장실 6실 -문화관광파크: 야외공연장, 야외광장, 조경 및 수경시설, 바닥분수 등 -기타시설 : 카페테리아 운영 •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총사업비 : 429억원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를 연계하여 군민이 함께하는 공간 창출과 삶의 질 향상으로 희망차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자 건립 • 지상 4층의 웅장한 규모로 지어진 본관은 520년간 지속되었던 찬란했던 대가야 시대의 궁성을 형상화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문화원,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7개의 복합시설과 인근 관광지 배후 시설인 대가야문화벨리를 통합 • 7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하나의 복합 건축물로 건립되면서 건축비·관리비·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주변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화하면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임 • 현대식 최신 시설로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조명·음향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으며, 건물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설 및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음 • 세밀한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 유학자 월담(月潭) 정사현(鄭師賢)을 기리기 위한 월담 연못·월담 정자·사색의 길을 조성하였으며, 고령을 대표하는 가야요·고령요·가야금·고령 기와 분야 4명 명장의 작품을 공연장 우측 홀 대가야 명장 코너에 상시 전시하고 지역 작가의 그림도 곳곳에 전시 • 대가야 전통 시장으로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거리 조성과 함께 인근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박물관,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역사 및 문화, 레포츠를 함께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고령군의 랜드마크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의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를 연계한 종합문화공간 • 거주인구(지역주민)와 유동인구(관광객)를 모두 포괄하는 복합복지공간



IV. 관련 여건 분석

라. 보령시 가족센터

<표 4-16> 보령시 가족센터

구 분	내 용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200-4번지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연면적 3,828㎡(지하 1층, 지상 4층) • 사업기간 : 2019~2024 • 총사업비 : 159억원 •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1층 : 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휴게공간 - 지상 1층 :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소통·교류공간 - 지상 2층 : 강의실, 요리조리실, 패밀리홀, 상상계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지상 3층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상담센터, 여성단체협의회 - 지상 4층 : 물품보관실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생활SOC 복합화 가족센터 최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 다목적 공간 개방적 배치, 공동육아나눔터 별실 구성으로 비상상황 대비 • 외부에서 다목적 가족소통 및 교류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유리 설계로 인지성을 확보하고, 상상계단을 통해 2층의 다목적 가족소통 및 교류공간을 1층과 유기적으로 연결함 • 공동육아나눔터를 별실 공간으로 구성해 코로나19 등 시설폐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배치함 • 2층의 다목적 소통 및 교류공간의 한면 전체를 개방적으로 배치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청소년, 다문화, 여성 등 가족 서비스 이용공간을 통합하여 교육과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 •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 • 공간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편의 제공



IV. 관련 여건 분석

마. 생활SOC 지역특화사업

① 양구군 평화지역 군장병 특화 생활SOC

- 외출·외박을 나오는 군장병과 면회객, 지역주민들이 함께 여가·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문화 체험 복합공간과 군장병 야외쉼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

<표 4-17> 양구군 평화지역 군장병 특화 생활SOC

구 분	내 용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규모 : 연면적 792㎡(지상 2층) • 총사업비 : 15억원(도비 7억5천만원, 군비 7억5천만원) • 주요시설 : 스크린 야구장, 빵만들기 체험시설, 북카페, 군장병 휴게쉼터 등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군 생활문화 체험 복합공간 조성사업 : 국토정중앙면사무소 옆 농산물 보관창고로 사용 중인 공유지에 '민군 어깨동무센터'를 조성 • 군 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 : 양구읍 비봉로(상리) 군인아파트 단지 내 군 장병 야외쉼터와 흡연부스 등 편의시설을 설치 • 향후 시가지 경관개선 등을 통해 조성된 특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복합·휴식공간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군 화합과 지역상생, 지역자생의 기반 마련 • 군부대 지역 공동화 현상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② 김천시 목재친화형 생활SOC

- 과거 목재 산업의 중심지였던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목재 관련 산업들을 모티브로 하여

IV. 관련 여건 분석

김천시민 누구나 목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

- 「2023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특화분야 우수상 수상

<표 4-18> 김천시 목재친화형 생활SOC

구분	내용
시설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건 :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 목재친화형 생활SOC 확충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 • 대상지역 : 김천시 아랫장터길 및 용두동 1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 사업규모 : 190,800m² • 총사업비 : 3,238백만원 • 사업유형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를 체험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목재문화센터 조성 • 목재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 목재문화센터 운영 주체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목제 축제 개최 등 목재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탄소중립 도시 실현 (산림청 공모사업)



IV. 관련 여건 분석

③ 상주시 두드림 시립도서관(생활문화센터)

-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유일 만화 특화 도서관’ 건립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게임, 웹툰, 웹소설 등의 차세대 한류사업에 주목하여 역사·문화의 도시 상주시가 K웹툰과 만화의 저변 확대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농업도시라는 이미지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친숙한 아이템으로 ‘만화’를 선택

<표 4-19> 상주시 두드림 시립도서관(생활문화센터)

구 분	내 용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 상주시 북룡동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5,922㎡, 연면적 3,780㎡(지상 3층) • 총사업비 : 193억원(국·도비 70억원 포함) • 주요시설 : 1·2층 시립도서관, 3층 생활문화센터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조성함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 어린이 전용 열람공간, 만화 특화공간(Cartoon Library) - 2층 : 일반 열람공간, 자유 열람공간 - 3층 : 마주침 공간, 주민자율 공간 • 향후 축제 때 상설 만화거리를 만들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도서관 활용 • 과감한 오픈 공간 구성과 문화를 주제로 한 특화공간 조성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도서관 이미지 탈피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변하는 환경과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유도 • 만화 저변 기반 확대 및 시민들의 독서 접근성·문화복지 향상에 기여



IV. 관련 여건 분석

④ 전주시 지방정원 가든센터

- 전주시 호동골에 조성 중인 지방정원 관람객과 주민들이 정원문화를 소개하고 즐길 수 있는 정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표 4-20> 전주시 지방정원 가든센터

구 분	내 용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호동골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 사업규모 : 연면적 1,518㎡(지상 2층) • 총사업비 : 66억원 • 주요시설 : 다목적홀, 세미나실, 작은도서관, 주민자율공간 등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조성함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홀은 실내식물과 각종 정원 소품, 예쁜 정원 사진전 등 전시공간으로 운영 - 세미나실은 정원식물 기르기, 반려식물 만들기, 정원문화특강 등 체험교육공간으로 활용 - 작은도서관은 정원 특화 도서관으로 채워져 관람객들이 정원 관람뿐만 아니라 정원에 대한 교양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활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의 역할 수행 • 차별화된 지역 특화시설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

⑤ 행복택시

- 대중교통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지역인 교통 소외 지역주민들을 위해 소액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요금 차액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로 교통복지 특화사업
-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높여주는 제도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이름(희망택시, 마중택시, 천원택시 등)과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 수혜대상, 요금, 운영시스템이 조금씩 다름
- 대표 서천군은 교통복지정책 중 하나인 ‘희망택시’ 운영 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완·개선책으로, 11개 읍·면 지역의 해당 마을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IV. 관련 여건 분석

2) 국외 선진 사례

가. 일본 가나자와 유네스코 ‘창조도시’

<표 4-21> 일본 가나자와 창조도시

구 분	내 용
위 치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市
주 요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자와시민예술촌, 21세기미술관, 이시카와현음악당, 예술교류관, 금박공예관 등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47만 명의 중규모 도시, 17세기 에도시대 지방 대영주의 성읍으로 400년 간 번성하였으며, 메이지유신 직후까지 일본 5대 도시로 꼽히던 곳 • 오래된 거리와 주택, 문화유산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통적 도시로 도자기, 염색, 칠기, 금박공예, 견직물 등의 전통공업이 발달 • 일본 최초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재 보호와 전통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법(전통환경 보존조례) 제정 • 도시 확장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상권 위축 등의 문제를 구도심의 거주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 전통적인 경관 보존 및 전통공예 살리기, 창조적인 인재 양성 등의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 - 도심정비와 함께 전통가옥, 게이샤거리, 사무라이 무사마을 등 10개의 전통 문화 보존 구역을 지정하여 관광명소화 - 1919년 개업 이래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1993년 조업이 중단된 ‘가나자와 방직’공장터 5개 창고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공간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으로 리모델링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저요금제, 시민디렉터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운영관리 -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해 2004년 ‘21세기 미술관’ 건립, 체험 위주의 작품을 전시하는 종전의 미술관 이미지와 다른 스타일의 미술관으로 대표적인 미술관 성공 사례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 시민주도의 전통 환경 보존 조례 제정 : 보존과 개발의 두 가지 가치 실현 • 지자체와 지역민 공공주도의 도심 활성화



가나자와 전통거리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IV. 관련 여건 분석

나. 일본 다카야마 마치즈쿠리 스팟

<표 4-22> 일본 다카야마 마치즈쿠리 스팟

구 분	내 용
위 치	일본 기후현 다카야마市
주 요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건축물, 전통시장, 각종 박물관 등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기후현 북부에 있는 일본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시정촌 지자체이며, 면적의 92%가 산과 숲으로 이루어진 고도 600m 산악지대, 내륙분지형 기후로 겨울철 강설량이 많음 • 보존지구를 조성해 전통마을구조 및 목조건축물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이동식 신사 '미코시'를 중심으로 열리는 축제가 유명 • 지역의 기업인 다이와리스와 NPO법인이 민간 부동산 법인과 협력하여 공장 이전 부지를 지역주민의 상업활동 및 교류 공간으로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위의 민간 부동산회사와 NPO 비영리법인이 협동하여 별도의 비영리 활동법인인 마치즈쿠리를 설립 - 민간 부동산회사는 대상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상업활동을 위한 임대 운영 시행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비영리활동법인은 주민 교류 공간 등을 운영하여 공익 창출 - 지역과 기업을 연계하기 위한 중간자적 입장에서 지역과 민간기업이 서로 이익이 되는 win-win 정책 추진 - 교류공간 운영, NPO운영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육아교실, 어린이 지역 활동 등 지원 : 청년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공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센티브 부여 • 수익성의 상업 공간과 공공성의 주민교류 공간을 한곳에 배치하여 주민의 상업활동 및 교류 수요에 대응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O(비영리단체)와 민간기업 주도 마을만들기 우수 사례 - 기업의 이익을 NPO적 시선에서 활용하도록 발상을 전환



마치즈쿠리 스팟 사무소



산마치거리 전통가옥

IV. 관련 여건 분석

다. 스페인 빌바오 ‘빌바오 효과’

<표 4-23> 스페인 빌바오 효과

구 분	내 용
위 치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
주 요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약 35만명으로 스페인에서 10번째로 큰 도시 •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공항터미널, 트램, 고속운송시스템, 문화레저센터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철강과 조선사업의 몰락으로 침체기를 겪던 도시 빌바오가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와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등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남 • 빌바오는 도시개조를 통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곳, 주민의 삶이 윤택해 지는 곳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빌바오 효과'(지역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수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을 초래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뜻)라는 말까지 탄생 • 문화예술 시설 유치가 도시재생에 큰 역할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미술관 주변에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등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되며 고용 창출 및 세수확보에 큰 기여를 함 • 이동성, 도시주의, 환경재생 및 문화적 중심성에 현저한 향상을 가져오는 인프라 실행에 따른 도시의 변화로 서비스, 문화 및 새로운 산업에 중점을 둔 경제 구조를 창출함 • '빌바오 메트로폴리스-30'과 '빌바오 리아2000'의 민관협력체+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공공성을 극대화하며 주거지역을 보호하면서 균형발전을 시도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주도형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 • 쇠퇴하던 공업도시가 문화시설 건립으로 경제적 부흥을 이룬 대표적 사례



빌바오 도시재생 전과 후의 모습



구겐하임 미술관과 수변공원

IV. 관련 여건 분석

라. 이탈리아 볼로냐의 수복형 개발 ‘볼로냐 2000’ 프로젝트

<표 4-24> 이탈리아 볼로냐 2000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위 치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주도
주 요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로냐현대미술관, 영화관, 예술연극학교, 도서관, 예술형 공방 등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이후 공동화된 구도시의 역사적 자원을 보존과 활용을 통해 도시 활성화를 유도 • 중세로부터 전해 내려온 역사자원을 문화예술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보존과 창조의 성공적인 조화로 '21세기형 창조도시'로 탈바꿈함 - 오래된 건물과 좁은 도로, 미로처럼 얽힌 골목을 단계적으로 개조해 문화예술지구 구성 - 담배공장, 요업공장, 소금창고, 제빵공장, 도축장 등 버려진 건물을 과거 산업 유산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며 도서관, 영화관, 영상자료관, 현대미술관, 복합문화센터, 박물관 등으로 재창조함 (제빵공장→볼로냐현대미술관, 도축장→복합문화예술센터) - 특정한 기능과 일정한 규모로 문화예술 단지를 조성하고 활용방법의 변화로 공간의 반전을 꾀함 - 중세 건축양식인 지역 특유의 '포르티코' 복원 • 유네스코 '음악창조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국제아동도서전, 타일인테리어 국제 전시회 등 세계적인 컨벤션과 이벤트 개최를 통해 박람회 도시로 발돋움함 • 역사보존 도시로의 도시계획 방향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시당국과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시대 역사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 • 리노베이션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도시로 재구성 • 시민참여와 협동조합의 도시



공장을 개조한 볼로냐 현대미술관



회랑 '포르티코'

IV. 관련 여건 분석

마. 독일 드레스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과 ‘유럽의 실리콘 벨리’

<표 4-25> 독일 드레스덴 유럽의 실리콘 벨리

구 분	내 용
위 치	독일 베를린의 남쪽 189km (동부 작센지역의 수도)
주 요 시 설	• 드레스덴 중앙역 인근 ‘프라거 거리’, 엘베강 북쪽 ‘미나폴리스’ 등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세계대전 폭격으로 상당수의 건물이 파괴되고 도시가 잿빛으로 변했지만 서·동독 통일 이후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서면서 화려하게 부활 • 과거 작센공국의 천년 수도였던 드레스덴은 츠빙거궁 등 르네상스부터 중세에 이르는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인 드레스덴이 구축한 문화자산인 도시의 역사적 건축물과 산업 유산인 폐공장의 공간과 장소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형의 문화자산과 연계된 무형의 문화자산이라 할 수 있는 도시·마을 문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공간의 활용성에 기반을 둔 도시정책을 펴 • 중세 이후의 역사적 모습을 간직한 도시에 재건된 드라스덴 프라우엔 교회 (Frauenkirche)는 역사적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구심점 역할을 함 • 엘베강 건너 북쪽 지역은 은빛 금속 재질 외관의 첨단 건축물들이 클러스터를 이룬 지역으로 드레스덴 전체 기업의 80%가 중소기업으로 특화된 클러스터와 중소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통해 R&D 인프라 구축 : 기초과학 연구기관과 세계적 대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선순환적 생태계(연구-투자-개발-생산)와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 세계적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연구비 등 지원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 자동차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新)지역자산의 발굴·개발 • 산·학·연 협업 네트워크 형성



드레스덴 문화예술 축제



폭스바겐 드레스덴 공장

3. 개발 여건 동향

1)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여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급증하고 있어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이하 저출산고령사회위)에 따르면 1991년 합계 출산율 1.71명, 출생아 수 71만 명에서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약 24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 세계 최저 순위(198위)를 기록
- 저출산고령사회위가 꼽은 저출산 심화의 원인은 만혼과 비혼 증가와 함께 기혼 가정의 출산률 하락으로 근래 기혼 가구의 평균 자녀 수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복합적 사회경제 요인에 기인함
- 취업난 장기화, 고용 불안정, 주거 비용과 양육비 부담, 초경쟁적 사회 환경 등으로 결혼·출산 지연 또는 포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에 ‘N포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 결혼 등을 포기한 세대를 뜻함
-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UN은 총인구 비율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 이후 고령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고령 인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행정안전부 자료) 926만 7290명으로 총인구의 18.0%를 차지하여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

IV. 관련 여건 분석

- 출산고령사회위는 향후 10년 내 25~59세(생산연령) 인구는 320만 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 명 증가,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나. 1인 가구 증가 및 개인 중심적 가치관

- 한국 사회에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가족 구성 및 가구 형태가 변화하는 가운데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가구 형태 중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나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05년 20.0%, 2021년 33.4%, 2023년 35.5%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이 31.1%에서 13.3%로 감소한 것과 대비됨
 - 2023년 기준 총가구 수 22,073,158가구, 평균 가구 수는 2명, 다문화 가구는 415,584 이 중 1인 가구는 7,829,035가구로 35.5%를 차지하며,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대전이며 경북은 5위를 차지함
 - 주요 연령 집단별 1인 가구 비율은 20-30대가 전체 가구수의 12.5%, 60-70대는 10%로 모두 증가 추세

<표 4-26> 주요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27.2	27.9	28.6	29.3	30.2	31.7	33.4	34.5	35.5
20-30대	9.6	9.7	9.8	10.1	10.6	11.4	12.1	12.3	12.5
60-70대	6.6	7.0	7.4	7.7	8.0	8.5	9.1	9.5	10.0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IV. 관련 여건 분석

- 1인 가구의 증가는 혼인을 감소, 만혼에 따른 미혼 독신 가구의 증가,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에 기인하며 학업, 직장, 배우자의 직장이나 자녀의 유학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는 낮고 우울감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사회적 대응이 필요함
-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삶의 가치관도 과거 가족 중심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 과거에는 집합주의적 가치와 가족 중심의 문화가 보편적 사회였으나 현재는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독립적인 삶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조되고 있음
- 1인 가구의 특징으로는 첫째, 편리하고 간편한 생활 추구, 둘째, 작은 공간에서의 생활 효율성(소형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 셋째, 자유롭고 적극적인 소비문화, 넷째, 외식문화 활성화, 다섯째, 높은 미디어 사용량, 여섯째, 개인적·독립적인 삶 추구 등이 있음
- 1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회적 활동의 한계 및 건강 문제(식생활의 불균형, 생활습관 등), 둘째, 재난 대처 능력의 저하, 셋째, 경제적 비효율성, 넷째, 사회적 고립감 증대, 다섯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 공간 부족 발생, 여섯째, 불리한 사회복지 혜택, 일곱째, 사회적 약화 등이 있음
- 1인 가구는 전통적 가족 구성원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인해 그 수혜 범위에서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감소로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음

IV. 관련 여건 분석

다. 다문화 사회 진입

- 현대사회에서 다양성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의 진입은 생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문화사회의 중요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적 발전과 공존을 추구해야 함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은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진입에 의해 동남아 등 인근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로 다문화가정이 증가추세에 있음
-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2042년 내국인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세,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한편, 국내 저출산 영향으로 다문화 출생아 수도 감소하였으나, 중·고등학생과 20대 초반 다문화 청년 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미취학 아동에 초점이 맞춰진 다문화 정책이 청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의 확립이 요구됨

<그림 4-6> 인구 및 구성비(2022~2042년)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527만 명에서 2042년 2,573만 명으로 감소,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47만 명에서 2042년 236만 명으로 증가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데일리굿뉴스, <https://www.goodnews1.com>

2)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대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공학,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혁신의 시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함
-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원격근무의 확산은 지방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증가시키고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시키며, 디지털 인프라의 발전은 지방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교통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며 안전을 강화하는 스마트 시스템의 도입은 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매력을 높여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또한, 원격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촉진될 수 있으며 디지털노마드(Digital Nomad: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하는 사람)의 유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도시 모델로 주요 목표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첫째, 스마트인프라 : 센서와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 예를 들어, 교통 시스템은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교통 체증을 줄임
 - 둘째,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도시 운영을 최적화하며 실시간 정보를 통해 교통, 날씨, 공공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IV. 관련 여건 분석

- 셋째, 에너지와 자원 관리 :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며 물과 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 넷째, 지속가능성 :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
- 다섯째, 안전과 보안 :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CCTV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안전을 강화함
- 제조업, 농업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경제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스마트농업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의료서비스와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헬스케어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고령 인구의 유지를 돕고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젊은 층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혁신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공유경제와 지역공동체

- 공유경제는 소유하지 않고 빌리고 나눠 쓰는 사회·경제 모델로서 현대인의 생활 트렌드에 맞춰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임
- 공유경제가 등장한 배경으로는 첫째,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IV. 관련 여건 분석

당시 저성장 경제 환경과 높은 실업률이 실질 가계 소득을 저하시켰고 이는 적정하게 소비하는 합리적 소비 패턴으로 변화시켰으며, 둘째, IT기술의 발달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개인을 IT 플랫폼인 SNS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에서만 이루어지던 공유경제 개념이 일상생활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음

- 공유경제는 지역 기반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 문제 개선, 공동체 의식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유희자산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 부동산, 시설 공간, 도구 등은 물론이고 지식이나 노하우 등까지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자원 배분 효과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유희자산의 활용 등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민간 소비 중심의 공유 비즈니스는 기존 사업자와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치 중심의 공유 비즈니스는 공동체에 필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으므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역의 유희자산 활용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기본 소득 형태로 공유하기도 함
-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경제’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희자산을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거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그 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기회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음
 - 도시재생을 통해 진행된 다양한 공유경제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공동체 재생과 청년, 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된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서 부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IV. 관련 여건 분석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로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
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유경제 기업이나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와 공유경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주민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내에서 자원이나 서비스
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
께 해결하는 등 지역의 발전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

4) 지역개발사업의 자원 조달

- 자원의 조달은 필요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장 기본
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부처별 자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정책의 종류에 따
라 자원의 유형도 각각 다름
- 최근 3년간(2022~2022) 추진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복합
화시설 건립 시 단일 시설 건립에 비해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
정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유재산 활용, 공공위탁개발
제도 등을 통해 부지선정과 재정 등 지역 부담을 완화함
 -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기간을 22년에서 25년으로 연장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
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장기저리로 상환하는 공
공위탁개발 제도 활성화
 -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복합화시설을 기획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대상을 넓히고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
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한 지역 내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의 기준을 제시

IV. 관련 여건 분석

- 경계지역은 공통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를 갖고 있는 곳으로 여러 행태의 생활SOC 개발사업의 재원 조달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거나 지역활성화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정부 공모사업은 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미리 반영된 국비와는 별개의 부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크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어 효과가 큼
 - 상주시는 23년도 정부와 경상북도의 다양한 공모사업에서 모두 49건 선정되는 성과를 내며 1천2백18억원 상당의 별도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
 - 상주시가 한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중 역대 최고 규모이며 한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 224억원(2022년 50건, 994억원)이나 증가
 - 상주시는 공모사업과 별도로 23년도 1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국비 112억원을 확보했으며 24년 2월에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 3년간 30억~100억원의 추가 국비를 확보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
 - 기초지원 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

IV. 관련 여건 분석

(S등급 4개소, A등급 14개소, B등급 26개소, C등급 45개소)에 따라 최대 144억, 최소 64억씩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

- 경상북도의 인구감소지역은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개 지역이며, 경주시와 김천시는 관심 지역임
- 상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심사에서 ‘청년의 상상이 실현되는 도시, 상주!’ 라는 비전으로 일자리 연계 청년 주거플랫폼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을 투자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평가 결과 경북도 시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상위 20%인 A등급에 선정되어 내년도 기금 112억원을 확보

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낙후지역 개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해예방 사업 지원 등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연구 개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독립된 회계 체제로 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배정되며, 예산 배분은 지역이 발전 수준, 사업의 시급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국가균형발전회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기반 시설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지역 산업단지 개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 대학의 연구 개발 능력 강화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되어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4.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1) 경계지역 생활SOC 시설의 접근성 강화

- 경계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이면서 동시에 고령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낮은 지역임. 따라서 경제적 여건상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공유화하고 지역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고령 인구의 증가로 대중교통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의 절대 수요는 감소하여 경제성 저하 및 서비스 낙후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인구소멸로 인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통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고령자 대상의 대중교통 공유서비스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교통 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패턴과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도입되어 고령 인구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해야 함
- 현재, 경상북도는 여러 시·군에 버스노선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하동군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강화와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가 시범 운행 중임

<그림 4-7> 수요응답형 버스



2) 인구감소 지역의 고령화 돌봄서비스

-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노인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노인돌봄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지만, 경계지역을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고령화 및 돌봄 수요대응형’인 돌봄 플랫폼은 지역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을 의미하며, 주민건강센터, 어린이집, 국민건강센터를 주시설로 두고 다른 시설들을 복합화하는 형태임
-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사회의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복지의 일원화를 목표로 ‘유로(幼老) 복합시설’ 운영하고 있음
- 노인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례로서 주거나 위생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음
- 실효성 있는 돌봄이 가능하려면 사회적 경제조직 등 지역자원과 행정의 협업이 핵심 사안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역의 주요 복지관과 보건소 및 행정에 커뮤니티케어 전담 조직을 두고 서로 협업하여 다각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3) 지역 간 협업 및 갈등 해소

- 지역주민의 발언권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범위가 확대

IV. 관련 여건 분석

됨에 따라 정책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마찰이 증가하고 있음

- 경계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거점시설 조성 시 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수적인 지역으로 지방자치시대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이해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대립은 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동적 기능 활성화, 상호협력 및 이해증진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미해결 시 사업 집행의 지연이나 장기화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조기적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제도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분쟁을 극한적 대립과 투쟁으로 보지 않고 문제 중심적 갈등 해결을 통해 공동이익을 성취하려는 인식의 전환, 광역 공급시설의 지역 할당 방식 도입, 정책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자치단체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경쟁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함

4) 지역자산으로서 생활SOC의 관광자원 활용

- 지역의 신자원 개발 측면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활SOC 사업을 제안함.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생활SOC 시설에 관광 편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관광객에는 최종목적지로서 체험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음

IV. 관련 여건 분석

- 생활SOC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생활SOC 시설에 관광의 기능과 용도를 통합하는 방안과 생활SOC를 지역 단위에서의 관광 기능과 역할이 있는 시설물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있음
- 그러나 생활SOC의 관광자원 활용 이전에 생활SOC의 조성 목적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라는 기본 전제하에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수용, 관광자원으로서 생활SOC의 가치 향상, 주변 관광자원과의 상호작용 촉진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4-8〉 생활SOC의 관광활용 개념화



출처 : 생활SOC의 관광활용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광의 행태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지역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다변화하고 있으며, 관광의 대상보다는 지역을 방문하는 개별 관광객에 대한 이해와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광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관광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관광자원 이외에도 방문한 지역의 모든 유·무형 요소가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SOC의 관광 자원화는 타당성이 있음
- 한편, 지역자산으로서 자연 자원은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 산악경관인 소백산, 속리산 등은 충청북도 및 타 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간 연계 협력과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경상북도 경계지역 생활SOC 개선방안

1.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2. 세부 추진 과제 검토



1.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1) 비전과 추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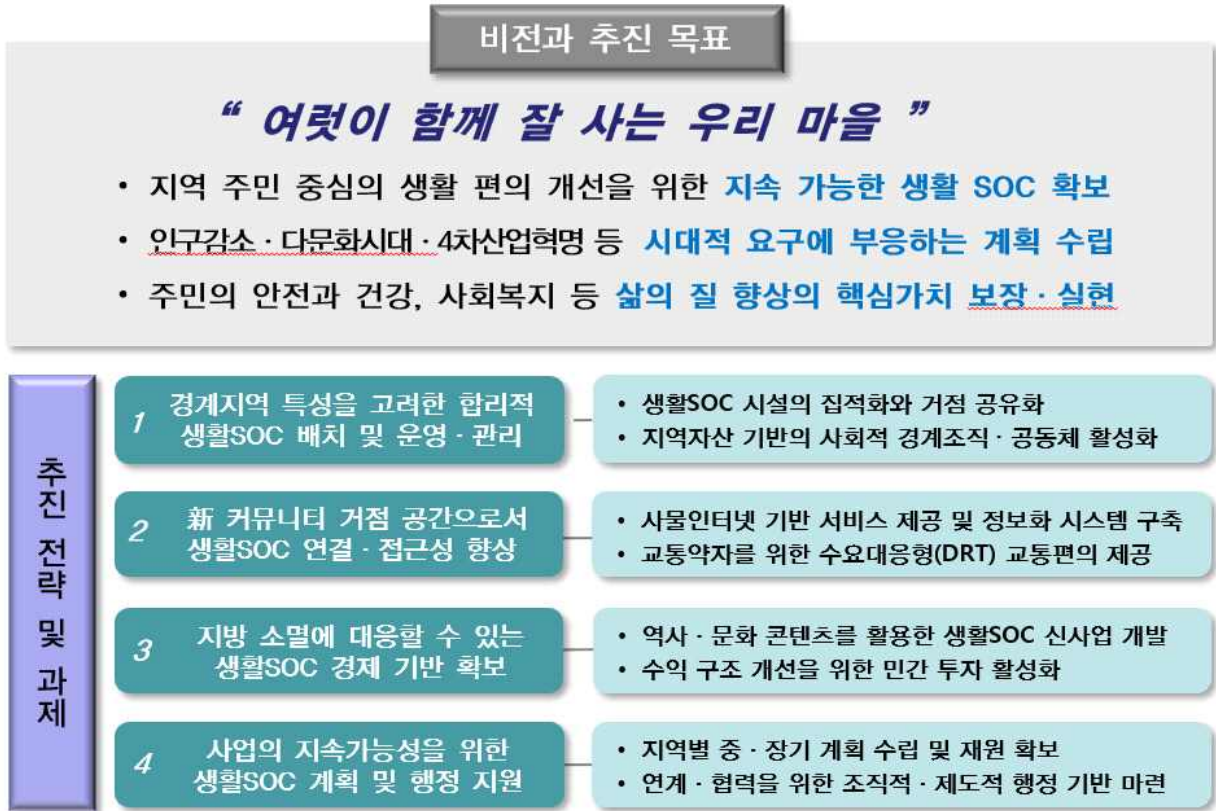
- 경상북도 경계지역 생활 SOC 개선 방안에 대한 기본 전제로서 비전을 '여럿이 함께 잘 사는 우리 마을'로 설정함
- 추진 목표는 첫째, 지역주민 중심의 생활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SOC 확보, 둘째, 인구감소·다문화시대·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 수립, 셋째,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사회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의 핵심가치 보장·실현으로 설정함

2)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표 5-1> 경상북도 경계지역 생활SOC 개선 방안의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1. 경계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생활SOC 배치 및 운영·관리	1-1. 생활SOC 시설의 집적화와 거점 공유화 1-2. 지역자산 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공동체 활성화
2. 新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생활SOC 연결 및 접근성 향상	2-1. 사물인터넷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2-2. 교통 약자를 위한 수요대응형(DRT) 교통 편의 제공
3.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SOC 경제 기반 확보	3-1.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SOC 신사업 개발 3-2.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4.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활SOC 계획 및 행정 지원	4-1. 지역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4-2. 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행정 기반 마련

<그림 5-1> 경상북도 경계지역 생활SOC 개선 방안 기본구상



2. 세부 추진 과제 검토

1) 경계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생활SOC 시설 조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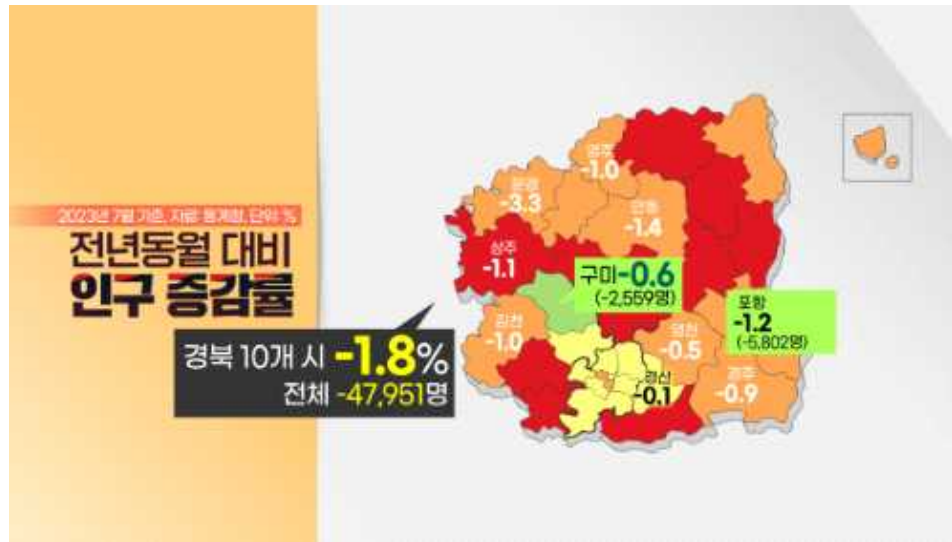
가. 시설의 집적화(복합화)와 거점 공유화

- 대부분 경계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도시에만 집중된 교통, 문화시설, 교육인프라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도시로의 이동은 증가하여 도시 집중화 현상은 가속화 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경상북도 인구감소 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 중에서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등 15개 시·군이며,

V. 생활SOC 개선방안

- 이 중 봉화, 영양, 영덕, 청송, 의성, 상주, 성주, 고령, 청도 등 9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임
- 상주시는 20~39세 여성 인구는 6%,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4%로 2023년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함

<그림 5-2> 경상북도 소멸 위험지역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61593>

-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이 쇠퇴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약화되고 질적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어 운영·관리상 물리적 팽창보다는 질적 제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공공서비스의 유지와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자 생활인프라 중심의 거점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통합화·집적화를 통한 효율적 이용 방안이 시도되고 있음
- 읍·면 단위의 경계지역은 접근성과 수요가 낮으므로 무조건적인 시설 확충 및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번 접근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 복합화 전략이 효율적이며, 수요가 현저하게 낮은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부족한 공급을 보완함
-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급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V. 생활SOC 개선방안

문화, 쇼핑 등 일상 생활서비스 시설을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집약하여 생활 서비스 거점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경계지역은 서비스 공급시설과 배후 지역 간 거리가 비교적 멀며 행정구역이 다른 주변 시·도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마을 간 거점을 활용하고, 마을 간 거점지역은 지역 내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다양한 일상생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점 시설 공유화 및 운영·유지관리의 공동화는 운영 비용 절감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물리적 복합화를 통해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상호 연계성이 높은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도시의 지가 상승과 부지 미확보 등의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음
- 운영·관리시스템의 질적 제고는 쇠퇴하거나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 유희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기능별로 거점화하는 동시에 서비스별 접근 범위, 인구 규모, 교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연계와 협력 개발을 통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 강화가 필요함
- 거점과 배후지 간 기능 배분과 연결성 강화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 지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경계에 기반한 도시계획구역을 넘어서 광역 단위의 계획수립을 고려해야 함
- 한편, 고령화 및 인구감소 지역, 농촌 지역 등과 같은 대부분 경계지역의 지역 특성과 함께 개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배분 전략이 필요함. 예를 들어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은 접근성이 중요하며, 종합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은 거점시설로 입지가 중요함
- 대부분 경계지역은 보건 의료 인프라가 특히 취약하여 공공 의료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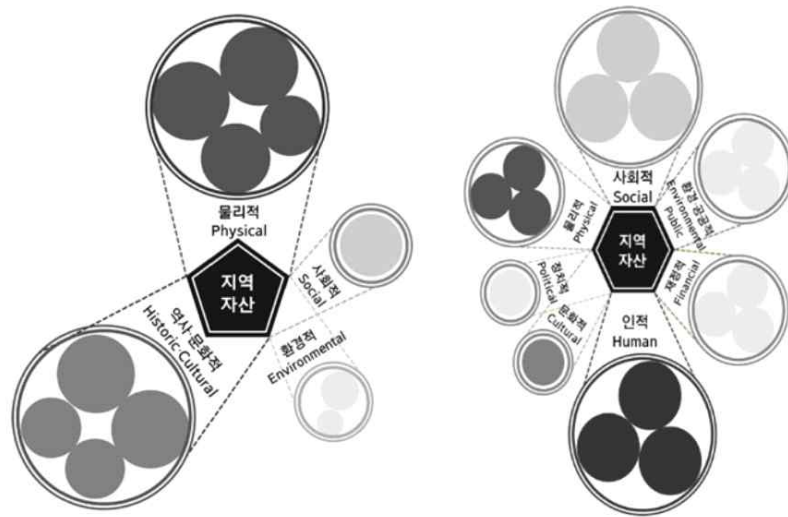
V. 생활SOC 개선방안

-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중요하나 경계지역의 보육시설은 공급이 적어 추가 확충과 질적 향상이 필요한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접근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임
- 경계지역은 여가 중심의 문화·체육시설이 중심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의 어려움이 있으나 수요가 적어 문화센터와 같은 복합문화시설의 형태가 적합하며,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함
- 인구 수요가 적은 지역의 소규모 시설들은 유지관리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 주민에게 이용을 개방하거나 시설 공간을 공유하고 주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등 운영상 전략이 필요함

나. 지역자산 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공동체 활성화

- 기존 도시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유·무형의 지역자산이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브랜드화로 이미지 향상과 정체성 강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지역자산은 자연경관과 같은 자연적 자산, 독특한 가로경관 및 풍경, 기반시설 등 구조적 자산, 지역 내 문화시설, 유물·유적, 관광명소, 축제·이벤트 등 문화적 자산, 커뮤니티나 인적 네트워크, 지역을 상징하는 특산품 등 사회적 자산, 지역 내 기업, 집단, 기술력 등 경제적 자산 등이 있음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의 정체성 및 경쟁력의 핵심인 지역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 전략에서 주민과 지역조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의 상호 간 협력과 신뢰 구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함

<그림 5-3> 지역자산의 개념 변천



출처 :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지역자산의 의미와 활용 실태 분석, 이선영·남진

- 사회적 지역자산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관계를 통해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속한 인력, 기관, 장소 등의 다양한 지역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함
- 특히, 지역자산 기반형 사회적 기업은 해체된 마을공동체의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외된 계층의 잠재능력을 강화시키고 그 자체가 다시 지역자산이 되어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공공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지역단위 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생활SOC 등 공공시설은 행정 자산이며 이를 다시 지역 자산화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첫째,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중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자산화 전략을 추진
 - 둘째, 공공 생활SOC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DB 구축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지역자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V. 생활SOC 개선방안

-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자산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과 공동체를 중재할 수 있는 지역 자산화에 관한 전문조직이 필요
- 넷째, 영국의 Localism Act와 같은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공동체는 지역 자산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일부 또는 전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 필요
- 생활SOC 시설 확충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므로 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 주도의 상향식 개발 형태가 이상적이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높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매우 효율적 방안으로 지역의 활성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한편, 2024년 8월 제정·시행되는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의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에 따른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함
- 농촌의 자원과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농촌돌봄농장’ 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등 농촌지역 내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우수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에게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돌봄, 교육, 보건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

2) 新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서 생활SOC 연결·접근성 강화

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중심지에서 벗어난 읍·면소재지 이외의 행정리 단위의 마을에서는 생활서비스 기능시설이 집적화된 공간들이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V. 생활SOC 개선방안

- 기존의 읍·면소재지 중심의 거점 강화 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근거리 생활서비스 중심의 경제, 교육, 의료, 복지 등 마을 특성화 거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지역주민 중심의 생활편의 시설들이 청년, 귀농·귀촌인 등 신규 유입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학교·어린이집·돌봄센터 중심의 교육·육아 거점, 복지시설·보건지소 중심의 의료복지 거점, 로컬푸드·귀농귀촌 플랫폼 등 핵심 기능 중심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한편, 디지털 인프라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SOC를 스마트화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SOC'가 주목받고 있음
- 이에, 디지털 기술을 생활 여건 및 유입 인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에 활용하여 지역 간 디지털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스마트 환경 조성을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SOC는 재난재해 예방, 교통 체증 완화,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발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료, 교육, 행정 등의 분야에서도 국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함
 -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개인의 생체 데이터 수집을 통해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의료시스템 내의 비효율적 진료 등을 제거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및 맞춤형 질병 치료 실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환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 아산시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에 선정되어 음봉어울샘 도서관에 로봇을 활용해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는 로봇 기반 서비스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이용객 분석 서비스를 충남도 내 최초로 도입해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할 예정

V. 생활SOC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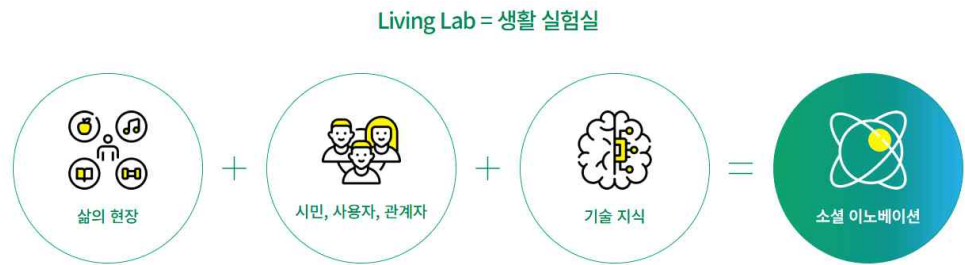
- 상주시는 ‘스마트팜 혁신 벨리’ 를 2019년에 전국 4대(상주, 김제, 밀양, 고흥) 거점으로 조성하고 청년 전문인력 양성과 선진기술의 지역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육성 지원함
- 스마트SOC 추진은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큰 비용이 드는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 및 재투자 방식을 지능 정보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기틀을 마련함
- 스마트 생활SOC에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인프라가 포함되며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스마트러닝과 같이 사회 기반구조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 사이 소통과 통신이 가능해져 초연결 미래 사회의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함
- - 지능형 실시간 교통신호 시스템, 자율주행차지원 교통안전 시설, 지능형 가상 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에코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CCTV, 스마트 생활폐기물 분리 시스템 등이 있음
- 스마트 기반 구축은 코비드와 같은 비상 상황과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Io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의 데이터 처리 지능화와 자동화를 통해 커뮤니티 단절과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스마트시티 행정과 운영, 공공서비스 전반에 혁신을 가져옴
- 또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 활성화와 상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시설 간 우수사례나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함
-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산·학·민·관 거버넌스의 협업이 중요하며, 도시 내 사람과 사람, 사람과

V. 생활SOC 개선방안

사물, 사물과 사물 등 다양한 상호작용의 과정들을 ICT 기술을 통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혁신적 방안으로 스마트 리빙랩(Living Lab) 모델이 활용되고 있음

- 스마트 리빙랩은 ICT(정보통신기술, 디지털기술)를 활용하여 생활 속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시민(사용자)이 직접 찾고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연구하여 새로운 해법과 사회 가치를 창출함

<그림 5-4> 스마트 리빙랩 모델



출처: <https://lab.ih.co.kr/intro/livinglab>

나.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대응형(DRT) 교통편의 제공

- 고령자가 일상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는 것은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활력있는 삶 영위에 중요한 요소로서 활력있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여건 개선의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에 가장 중요한 시설은 의료 서비스시설과 쇼핑시설, 문화생활시설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다양성’, ‘보행 보조수단 탑승 용이성’ 개선이 우선 시급하고 ‘운영 횟수’, ‘버스정류장까지의 접근성’ 이 함께 개선되어야 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3)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2026년까지 농·어촌버스

V. 생활SOC 개선방안

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42%까지 확대

- 또한, 많은 고령자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활용도가 낮으므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대중교통 정보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함
- 특히, 경계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고 교통 취약지역의 경우 수요 부족에 따른 낮은 수익 문제로 대중교통 공급이 저하되어 주요 생활SOC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행이 곤란한 주민들을 위해 거주지와 주요 생활SOC 간을 운행하는 수요대응형 교통수단(Demand Responsive Transit) 서비스 제공이 제시됨
- 일반적인 고정된 노선과 배차간격에 의해 운행되는 전통적인 대중교통 체계의 특징으로는 수요가 높은 노선에서는 높은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품질과 수익성이 높은 반면, 수요가 낮은 노선에서는 비효율적인 노선 형태와 낮은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수익성은 물론 승객 서비스의 품질까지도 떨어지는 특징이 있음. 이에 비해 수요대응 교통은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노선이나 시간을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운행하는 대중교통임
- 수요대응 교통은 운행 방식에 따라 정해진 노선이 있으나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고정형, 기본적으로 고정 노선이지만 수요에 반응해서 일부 구간만 우회하는 우회형, 정해진 기종점을 기준으로 수요에 반응해서 경유지를 설정하는 세미 다이내믹형, 택시와 같이 기종점 및 경유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수요에 따라 운행경로를 설정하는 다이내믹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행복택시(희망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액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요금 차액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주고, 택시 수요를 증가시켜 택시 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임
 - 상주시는 2014년 제정된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경

V. 생활SOC 개선방안

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추진되어
'100원 희망택시' 를 운영하고 있음

- 최근에는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으로서 교통공학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DRT 모빌리티가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에도 접목되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영버스 노선 중 배치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1일 평균 이용객수가 80명 이하인 노선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읍서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방식은 전화나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 방식으로 30분 단위로 호출을 모아 동승률을 높여 배차가 이루어짐
-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읍·면지역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DRT) '두루타' 이용객이 사전 '예약제' 에서 택시처럼 필요할 때 부르는 '즉시콜' 로 운영 방식을 바꾸고 '즉시콜' 앱 설치 지원을 통해 50% 이상 증가함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별도의 정기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출·퇴근 수요를 주로 담당하는 일반버스 혹은 인근의 산단 셔틀버스 등을 활용하는 낮시간 '실버 버스' 의 운영 방안을 모색
- 서초구의 효도버스는 고령자의 주 통행시간인 9시~17시에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된 유희 버스 운영 자원을 배치하여 버스 운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3)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SOC 경제 기반 확보

가.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SOC 신사업 개발

-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 유지를 위한 생활편의 개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생활 인구 개념의 포괄적 유입 인구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의 방안 모

V. 생활SOC 개선방안

색이 필요함

- 생활 인구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를 말함. 즉,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것으로, 최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대부분 경계지역은 공통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지역, 지역활성화정책 대상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서 다른 기타 지역과 다르지 않고 행정상 지리적 위치로 중심지와 다른 차이를 갖고 있음
-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개선이라는 공통된 전제하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거점 기능 강화’ 중심의 사업보다는 지역만의 고유 특성을 살리는 ‘도시 아이덴티티(City Identity)’ 중심의 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함
- 도시 아이덴티티는 도시의 가치, 이념, 특성 등을 상징화, 차별화한 도시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특정 도시로서 기억되는 이미지, 도시 브랜드와도 연관됨
- 같은 의미로 도시 정체성은 개별 도시의 전통이나 특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도시 공간을 통해 투영되어 보이는 인지적 결과이며 도시 정체성의 구축 요소인 문화와 역사, 장소 등의 랜드마크적 특성에 대한 인지도도 함
- 도시 마케팅 측면에서 도시 경쟁력의 제고는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의 경쟁적 아이덴티티는 다른 도시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 도시만의 장점이자 지역민의 삶과 연결된 사람과 장소의 결속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시 정체성의 확보는 궁극적으로 특정 도시에 대한 자

V. 생활SOC 개선방안

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그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와 살고 싶은 도시(liveable city)로서의 도시 만들기(city making)와 연관되며 결국 도시 활성화와 직결됨

- 한편, 최근 국내·외 지역개발의 이슈는 ‘문화적 재생’으로 지역의 고유문화 및 가치를 통한 사회 정체성 유지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생태계 구축과 도시에 사는 시민의식과 삶의 특성 발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문화적 도시재생이란 쇠퇴 지역에 공공 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의 활성화 도모함
 - 조선소, 양조장, 발전소 등과 같이 도시 내에서 기능을 잃고 방치되거나 침체된 지역이 문화의 창의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함
 - 국내 각 지역의 원도심 재생 사업 추진에 있어 부산 영도의 깡깡이마을,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등의 사례와 같이 물리적 재생이 아닌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지역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문화적 지역재생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 기존의 역사·문화, 경관 등의 마을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재현한 관광지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점은 역사적 유산의 물리적 외형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역 삶의 주체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 협력하에 추진되어 새로운 문화적 장소 가치와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함
 - 지역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대화 과정에서 지역의 상황 및 여건,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함께 공유하고 합의한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의제 해결을 통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공동으로 추진
 - 특히, 농촌의 문화재생은 농촌의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리는 것이 중

V. 생활SOC 개선방안

요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농촌 고유의 자산을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함

- 이에, 정부 중심의 생활SOC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생활SOC에 관광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다양한 생활밀착형 관광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활SOC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자원으로서 재조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 정부 재정 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재정 여력 한계로 공기 연장 사례가 발생하는 반면, 민간 자본 유치는 건설 기간 단축이나 정부 재정의 보완 측면에서 효과가 크며 사후 운영 측면에서도 민간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음
- 민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발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민간 기술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완성도를 확보하는 등 혁신적·대안적 자원 조달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나, 민자 도로 운영에서 민간 자본 폐단의 단점이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수익성, 시급성, 운영 효과성 등을 고려한 사업방식의 모색이 필요함
 - 기존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사업 수익률을 확정하고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나,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의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생활SOC 공급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생활SOC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수익

V. 생활SOC 개선방안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함

- 국토연구원(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국토정책 Brief 제853호, 2022)이 실시한 생활SOC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생활SOC는 주차장·수영장·체육관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생활SOC는 다가치센터·게이트볼장·우수 저류시설 등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률은 3%이상~ 4%미만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보조금 확대(58.5%), 민간자본 유치(14.6%), 크라우드펀딩 조성(2.4%) 순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자체 운영인력 확충(29.3%),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운영위탁(19.5%),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운영위탁(17.1%), 지자체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2.4%) 순으로 나타남
- 국·공유지 활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유지 활용(14.6%),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 연장(7.3%),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4.9%) 순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 투자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하여 수익화,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기존 노후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사업방식 다변화 :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생활SOC를 사용료 징수 방식, 운영 주체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절한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L, BTL+민간 운영 방식을 도입
 - 번들링 : 소규모 생활SOC 단위 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를 키워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 투자사업 유인을 강화시키고, 시설 운영상의 편

V. 생활SOC 개선방안

리성을 증대

- 부속사업 유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 사업을 활용하여 생활SOC에 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 수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배하여 수익하는 방식 도입
- 노후 SOC사업과 연계 :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열배수관 교체 등 노후 인프라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총사업비 규정을 제정

4)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활SOC 계획수립 및 행정지원

가. 지역별 생활SOC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 지역별 정주 여건에 맞는 생활SOC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사업관리 및 사업 검토와 평가 기준 마련
 - 개별사업이 하나의 체계하에 수행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SOC 시설 안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고보조사업 및 생활SOC 관련 중앙부처 사업 등의 가용 예산을 파악하여 확보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등 투자 확대”를 언급
 - :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를 중심으로 10년간 (‘22~’ 31) 매년 1조원 지원
 - 상주시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확보하였으며, “청년의 상상이 실현되는 도시, 상주!”라는 비전으로 ‘일자리 연계 청년 주거플랫폼 조성 사업’을 비롯해 ‘상상주도 어울림화수분’,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경북연합 청년 거버넌스 ‘경북에서 가치살자’, ‘청춘 상주 모락모락’ 등 8개 사업이 포함됨

V. 생활SOC 개선방안

- 생활SOC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수요에 따른 수량 산출과 배분 계획, 필요 입지와 공급 가능한 공간 마련 등 생활SOC 공급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지역별, 시기별 배분과 설립에 대한 종합적 계획 필요
 - 생활SOC에 대한 관련법과 조례 제정으로 생활SOC 공급이 증가했지만, 공급 방식은 체계성이 부족함. 시설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민원을 통해 파악되며 체계화된 수요조사 체계가 미흡하고 시설 공급 과정에서 주로 군·구 자산의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수요가 많은 곳보다 유휴공간의 여부가 시설 입지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

나. 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행정기반 마련

- 행정력의 집중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단일 행정 추진체계 필요
 - 경계지역은 성격상 다양한 지원체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잡한 관련 실과협의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소통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단일 행정 추진체계 필요
 -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개별 실국 차원이 아니라 이를 단일한 행정조직 체계로 묶을 수 있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관련 부처별 시설을 통합하여 사업 전반을 총괄 추진하고 관리할 전담 조직을 운영
 - 생활SOC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SOC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
- : 서울시는 2019년, 생활SOC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0분 도보권 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고자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분 동네 생활SOC확충 3개년(2020~2022) 종합계획을 수립함

V. 생활SOC 개선방안

- 두 개 이상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시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실효적 지원책 마련
- 타 지자체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계지역 특성상 협약을 통해 공동 거점시설 이용 시 분쟁 해소 및 상생발전 도모
-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축
 -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생활SOC 운영협의회(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 생활SOC 시설 건립 이후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생활SOC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모색
- 스마트 생활SOC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주민 주도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주민 역량교육 시행

참고문헌

단행본

- 관계부처 합동, 생활SOC 3개년계획(안), 2019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안), 2020
- 관계부처 합동,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2021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2023
-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생활SOC 3개년계획 추진성과(2022 생활SOC 정책컨퍼런스), 2022
- 국무조정실, 생활SOC 지역참여 선도사례집 1편, 2020
- 국무조정실,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집 2편, 2020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 우수 사례집, 2022
- 국토연구원(윤하중), 생활밀착형 SOC 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015
- 국토연구원,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2019
- 국토연구원, 활력있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 연구, 202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최자은), 생활SOC의 관광활용방안 연구, 2020
- 건축공간연구원,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개선방안 연구, 2020
- 건축공간연구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 2021
- 배성기(브릿지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활SOC 사업 참여 확대방안, 2019
- 미래사회정책연구원, 경상북도 경계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별 개발계획, 2023
- 나라살림연구원, 경상북도 경계지역 활성화와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 2023
- 이선영·남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Vol.50 No3,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지역자

V. 생활SOC 개선방안

산의 의미와 활용 실태 분석, 2015

- 제63회 경상북도 통계연보, 2023

인터넷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경상북도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 <https://data.gb.go.kr>
- 경상북도청 <https://www.gb.go.kr/>
- 상주시청 <https://www.sangju.go.kr/>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
- 어린이집 유치원 찾기 <https://www.daycarekorea.com/child/>
- 아동권리보장원 <https://dadol.or.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s://www.familynet.or.kr>,
- 작은도서관 <https://www.smalllibrary.org>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 데일리굿뉴스 <https://www.goodnews1.com>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326001201>뉴스
-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